

17  
024.991  
0 > 812

碩士學位 論文

# 濟州道 地域圖書館의 鄉土資料開發에 관한 研究

-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比較 分析 -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Local Materials  
in Cheju Community Libraries

— Compared with that of Okinawa Community Libraries —

指導教授 朴 龍 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相 淑

1999年 8月

# 濟州道 地域圖書館의 鄉土資料開發에 관한 研究

-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比較 分析 -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Local Materials  
in Cheju Community Libraries  
-- Compared with that of Okinawa Community Libraries

指導教授 朴 龍 垌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8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相 淑

梁相淑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년 8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國文抄錄〉

## 濟州道 地域圖書館의 鄉土資料開發에 관한 研究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比較 分析-

梁 相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朴 龍 垈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을 위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濟州學' 연구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와 문화적·지리적으로 흡사한 일본 오키나와縣에 있는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도서관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제주도에 있는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도서관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토자료 개발을 위해서는 향토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도서관 예산에 지속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화된 수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토자료의 효과적인 보존 방법은 지역도서관 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를 각 가게에서 잘 보존할 수 있는 의

식을 심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향토자료를 전산화되어야 하며, 도서관끼리 상호대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향토자료 개발 면에서는,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구술자료의 개발도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도서관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향토자료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향토자료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이며, 고유문화를 조명해보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향토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를 정리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 目 次

I. 序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	1
2. 研究日의과 方法 .....	2
II. 理論的 背景 .....	6
1. 郷上資料의 概念 .....	6
2. 郷上資料의 範圍 .....	7
3. 郷上資料의 種類 .....	9
III.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	15
1. 濟州道와 오키나와縣의 地理的·歷史的 特性 .....	16
2. 濟州道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實態 .....	19
3.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實態 .....	23
4.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上資料開發 比較分析 .....	26
IV.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開發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및 活性化方案 .....	61
1.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開發에 관한 問題點 .....	61
2.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開發에 관한 改善方案 .....	65
3. 地域圖書館 郷上資料 開發에 관한 活性化方案 .....	72
V. 結 論 .....	77

參考文獻 .....	79
英文抄錄 .....	83
質問紙 (1) 濟州道 .....	85
質問紙 (2) 오키나와(沖繩)縣 .....	90
〈부록1〉 奎章閣 所藏 濟州道 關聯 資料 目錄 .....	95
〈부록2〉 濟州鄉校 所藏 濟州道 關聯 資料 目錄 .....	99
〈부록3〉 日本 圖書館 所藏 濟州道 關聯 資料 目錄 .....	103



## 表 目 次

〈표 1〉 향토자료실 실태 .....	28
〈표 2〉 고문서나 고적류의 별도 공간 여부 .....	29
〈표 3〉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 소장 여부 .....	30
〈표 4〉 문서화된 수서 정책 여부 .....	32
〈표 5〉 향토자료 수집예산 책정 여부 .....	34
〈표 6〉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차이 여부 .....	35
〈표 7〉 박물관적 자료의 향토자료 여부 .....	36
〈표 8〉 박물관적 자료 도서관에 수집 필요성 여부 .....	37
〈표 9〉 분담 수서 필요 여부 .....	39
〈표 10〉 자관 자료 목록 파악 여부 .....	40
〈표 11〉 정기간행물 정기 기증 여부 .....	42
〈표 12〉 행정관청 자료 요청 여부 .....	43
〈표 13〉 지역도서관에서 각종 단체에 자료 요청 .....	44
〈표 14〉 향토자료에 대한 별도 분류 규칙 여부 .....	45
〈표 15〉 개인 소장자료 지역도서관에 위탁 보관 .....	48
〈표 16〉 물리화학적 조치여부 .....	49
〈표 17〉 향토자료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51
〈표 18〉 자료 수집을 위한 정기적으로 방문 .....	52
〈표 19〉 지방의회에서의 자료요청과 참고문의 .....	53
〈표 20〉 지역 주민에게 향토자료대출여부 .....	54
〈표 21〉 도서관 상호대차 여부 .....	56
〈표 22〉 지역사(향토) 자료를 위한 도서관과 단체 방문 순위 .....	57
〈표 23〉 제주도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설문지 종합 분석 .....	58
〈표 24〉 濟州道 地域圖書館과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現況 .....	60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향토자료는 지역 정신 문화의 주축이며,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진귀한 文獻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과 자료는 단순히 史料로서의 이용가치를 떠나, 또 다른 경지인 정신적인 차원에 속한다. 특히 이의 보존은 한 겨레의 경험과 슬기의 축적이요, 계승이며 기억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sup>1)</sup>

따라서 향토자료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게 해줌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정책이란 것도 대개 낡은 것을 되풀이 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sup>2)</sup> 지방화 시대가 열린 요즘에는 향토자료의 수집·정리·보존·활용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거나 혹은 이미 발간된 향토자료와 선조의 혼이 배어있는 우리 고장의 독특한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향토자료인 전적류(고서·고문헌)가 도외로 유출되었거나 소장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손실 또는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근·현대사 관련 자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수집 정리가 미

- 
- 1) 백기량(1991), 「미국내 한국관련기록 및 서류목록(영문판)」, 한국국제교류재단, p. 3.
  - 2) 노재봉(1997), “국가기록물 보존의 중요성,” 「기록보존」 제10호,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p. 9.

흡하며, 각 관공서의 자료들도 일정한 곳에 보관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폐기 처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헌정보센터인 지역도서관에서 장서 개발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장서개발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시설을 제공하는 일련의 도서관 업무 중 첫 단계로서,<sup>3)</sup> 장서 개발 없이 훌륭한 도서관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서관 자료를 전산화하고, 그에 따른 참고 봉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장서가 빈약하다면 봉사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향토자료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건들을 냉정히 판단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후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향토자료는 선조들의 좋은 정신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고 길이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sup>4)</sup>

그러므로 향토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향토 자료로서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2. 研究目的과 方法

제주도는 本土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주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典籍과 古文書<sup>5)</sup>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조사·수집·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나, 1983년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sup>6)</sup>에서 제주도내의 전적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3) 사공철 편(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한국도서관협회, p. 327.

4) 양상숙(1997), “대학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방안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15집, p. 15.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1910년대까지의 전적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당시 조사에서 빠진 자료를 비롯하여 현재 발굴되는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정리·보존은 물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3), 「제주도 전적류 종합조사보고」, 「탐라문화」 제3호, pp. 269-288.

로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일부 교수들과 도·내외 郷土史學家에 의하여, 제주지역에 있는 전적과 고문서에 대한 조사·정리·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전적과 고문서들마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고장에서 전적과 고문서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무성의한 관리, 도민의 인식 부족<sup>8)</sup>과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이고, 또 문헌정보기관의 하나인 제주 지역도서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도서관의 하나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의 경우, 향토자료가 빈약한 것은 대학 정책상의 문제도 있지만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시삽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귀중한 문화유산인 향토자료의 훼손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사명의식과 수집된 자료의 철저한 보존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서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주도를

- 7) 강창용(1991), "18세기 제주내노비의 토지소유 - 제주·대정 무후노비 양안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창간호)』, pp. 71-89.  
김지홍(1987), "운평리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제6호, pp. 75-116.  
고창석(1993), "조선중기 노비의 소유권 분쟁 - 1662년 제주목관입안 -",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 제주문화연구』, pp. 423-460.  
\_\_\_\_\_(1993), "조선후기 제주도 전답문기의 연구 - 고재일씨 소장문기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제13호, pp. 81-124.  
\_\_\_\_\_(1994), "사계리 능서구씨가와 그 문서", 『탐라문화』 제14호, pp. 43-82.  
\_\_\_\_\_(1996), "조선후기 제주도 토지매매의 실상", 『탐라문화』 제16호, pp. 113-161.  
박찬식(1996), "찰리사겸제주목사 박원용 보고서", 『탐라문화』 제16호, pp. 255-272.  
오성찬(1993), "제주 역사 관련 고문서에 대한 고찰-人靜縣衙申 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향토사 연구 전국협의회, 『향토사연구』 제5집. p. 167.  
조성윤(1992),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경주 김씨가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제2집. pp.51-65.  
8) 오성찬(1993), "제주 역사 관련 고문서에 대한 고찰", 『한국향토사연구회』, 제5집, p.167.  
박찬승(1997), "역사기록 보존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만들자", 『역사비평』 봄호, p. 81.

연구하는 향토 연구가와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열람·이용하게 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제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적과 고문서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은 제주도를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균형을 이룬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향토자료가 집대성될 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항상 발전되고 제주도민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반면에 제주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때, 제주도는 개발만이 있고 문화가 없는 제주도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sup>9)</sup>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 발전 시키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濟州學’<sup>10)</sup> 연구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토자료란 무엇이며 향토자료 수집·정리를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물인 논문 학술잡지 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도서관 향토자료실 운영에 따른 연구사례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므로, 제주도와 문화적·지리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오키나와縣에 있는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도서관<sup>11)</sup>의 향토자료 개발 현황과 제주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sup>12)</sup>

- 
- 9) 양상숙(1998), 「향토자료실 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와 과제」, 부산민족민화사, p. 31.
- 10) ‘제주학’이란, 제주인들이 살아 온 역사를 濟州島的인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학문적 접근을 말한다. 제주도적이란, 지역적으로 제주도에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적으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연구의 범위는 제주의 고유 지명, 고서와 고문서 등 제반 분야를 포함한다. 「제주학」 창간호 卷頭言,
- 11) 본고에서의 ‘지역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종래의 도서관에서 통용되는 지역공공 도서관의 범위로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주도와 오키나와현에 소재 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도서관 진부를 뜻한다.
- 12)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현을 비교 분석한 이유는 첫째, 지역적인 면에서 서로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지역도서관이 數的으로 제주도( 대학6. 공공 13)는 19개, 오키나와현(대학, 5, 공공 10)은 15개로 서로 비슷하고 셋째, 오키나와 대학교과 제주대학교가 학술교류 협정에 의해 상호 교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넷째,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일본 오키나와대학 교수가 많았

연구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채택하였으며, 대상은 지역도서관장이나 향토자료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대학도서관 5, 공공도서관 10)에는 질문지를 우송하여 전량 수집 채택하였고,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대학도서관 6, 공공도서관 13)은 질문지법과 현장 방문으로 조사하였다.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향토자료 개발의 문제점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 따라서 오키나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 II. 理論的 背景

### 1. 郷土資料의 概念

‘향토’는 출생지·현주소 등의 계기에 의하여 개인이나 인간 집단과 특수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성되는 사회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을 지칭한다. 향토의 지역적 범위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부락이나 마을·읍·시,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군 등을 가리킨다.<sup>13)</sup>

이외에 ‘향토’를 선조이래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의식과 그의 거주지역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지리학적 측면에서 향토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향토란 ‘인간 생활에 있어 자연에 대한 적응을 통해 나타나는 생활 단위체의 기능적 관련을 중시하고, 또 자연에 대한 생활의 적응은 人間聚畧을 통해 이루어진다.’<sup>14)</sup>고 보아 취락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라고 할 때, 자기 고향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며, 이는 향토에 대한 관심을 가짐은 물론 자기인식의 표현<sup>15)</sup>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향토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지역자료(local collection)와 지방사 자료(local history collection)를 혼용해서 쓰고 있으나, 개념상 둘을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sup>16)</sup>. 이들의 개념을 지역사회와 관련 시켜보면, 지역사회란 ‘일정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독특한 풍토를 배경으로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특정 귀속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적 자율성과 문화적 독

13) 정장호(1989), 『지리학사전』, 경인문화사, p. 559.

14) 김상호(1989), “향토문화론”, 『새교육』 제10호, 대한교육연합회, pp. 54-55.

15) 이기백(1987), “향토사 연구와 그 방향”, 『대우 재단 소식』 제22호, p. 4.

16) Kent, Allen et al.(ed.by),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6』, (New york : Marcel dekker, 1975), pp. 259-279.

자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7)</sup> 또한 지역사회는 일정한 크기의 지역인 지역성과 자체내의 필요를 충족시켜 가는 여러가지 기능인 포괄성, 구성원간 공동의식의 연대성을 함축시킨 의미이며, 지역이란 지역사회보다 더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sup>18)</sup>

이처럼 향토와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유사한 개념으로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나, 지역사회와 향토의 관계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향토자료란, 일정 지역 문화권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목표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한 모든 자료를 총칭한다.

## 2. 郷土資料의 範圍



도서관 측면에서의 향토의 범위는 결국 개인이 향토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규모, 방침 등에서 고려해야 한다.<sup>20)</sup> 그리고 향토지역의 범위는 자연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보다 인문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sup>21)</sup> 공공도서관이라면 그 지역의 행정 범위나 규모에 따라 봉사대상 지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의 마을(里)에서 시작해서 面으로 郡에서

17) 서재천(1987), “초등학교 지역사회학습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고찰”, 『사회과 교육』 제20호, pp. 178-179.

18) 정현태(1995), “공공도서관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19) 황종건(1992), “향토 학습을 통한 향토교육 방안 연구 -신영지방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20) 정현태(1995), 전제논문, p. 12.

21) 장경호(1991), “구미도서관 향토자료실을 중심으로” 『91년도 봄철 공공도서관 세미나 : 향토문화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협의회, p.52.

시로 차츰 향토의 범위가 커지게 된다.

자료의 수집은 도서관의 행정 범위를 벗어나 그보다 넓은 지역을 향토라고 간주하여 수집 범위를 인접지역의 자료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市·郡·區立圖書館 등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위치하는 市·郡·區·군이 제1의 향토이기는 해도 넓게는 소속한 도 전체를 향토라고 생각해서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sup>22)</sup>.

향토자료 수집에서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은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까지를 범위로 할 것인가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구분에서 大都市는 대도시를 범위로 하고 地方都市나 地方行政 구역들은 市, 郡, 邑, 面, 洞, 村落 등을 범위로 정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권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한 인위적 도시구획 또는 문화적 생활 공간의 확대 등으로 지역화와 향토화의 범위는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리적인 면(일정한 지역)과 시간적인 면(역사의 변천)으로 향토자료의 범위를 정하다 보면 지리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이 향토자료의 수집 범위는 영원히 고착시킬 수 없다.

제주 지역 향토자료 범위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자료 수집에 주력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이 있었다. 가깝게는 제주도가 전라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도의 향토자료의 시대적 구분은 불투명하며, 행정적, 시대적으로 자료 수집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도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향토자료 수집 범위를 지리적인 특성으로

22) 이택준(1970), “향토자료의 수집보존” 『도서관』 제25권 제3호, p.35.

23) 장대원(1976),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향토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제31권, 제4호, p. 60.



정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의 변천에 비해 지리적인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本土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토의 본질은 그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에 있다고 전제할 때, 역사적으로 제주도가 과거에 행정 구역이 타도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곳의 전통과 문화가 이곳에 심어지지 못했으며, 또한 이곳의 전통 문화가 그곳으로 전수되었다는 연구물도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부속 섬(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의 유인도와 무인도)을 향토자료의 수집 범위로 정하며, 박물관적 자료를 제외한 문헌중심(시청각자료 포함)의 자료에 한해서 정하고자 한다,

### 3. 郷土資料의 種類

#### 1) 國內 郷土資料의 種類

향토자료·향토사 자료·지역자료·지역사 자료를 어떤 것이 향토자료라고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향토자료란 그 해당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서 내용이 그 지역과 연관된 모든 자료로서 韓國 圖書館協會에서 향토자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향토와 향토인 기타 그 향토에 관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자료
- ② 향토가 주요한 무대로 된 작품과 향토인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된 작품
- ③ 향토에 전승된 자료(향토에서 발견, 발굴된 자료)
- ④ 향토에서 개최된 개최물에 관계된 자료
- ⑤ 향토에 관한 행정이나 사법에 관한 자료

- ⑥ 향토소재기관의 요람·규칙·명부·통계·보고·소장목록
- ⑦ 향토의 명부, 향토인의 작품목록, 저술목록, 소장목록 등, 향토 출판물, 향토인쇄물(신문, 잡지, 포함), 향토·향토인을 기념한 작품
- ⑧ 향토에 관한 중요한 기사가 실린 일반 문헌, 직접 향토에는 관계가 없으나 문화·산업·이주 등 관련 상향토자료에 준해서 취급되는 자료
- ⑨ 향토에 관한 회화·지도·기타, 향토인의 전기·초상화
- ⑩ 향토의 저명한 건물·시가·풍경·인물·풍속·사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4)</sup>

또한 향토자료는 크게 문헌기록과 문화적 유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文獻記錄으로는 史書, 公文書, 判決文, 法律書, 地誌, 文集, 詩集, 經書, 醫書, 兵書, 農書, 日記, 紀行文, 見聞書, 書畫, 懸板, 金石文, 樂譜, 新聞, 刊行物, 研究書, 指針書 등이 있다.

둘째, 文化的 遺物에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不動產에는 城郭, 古墳, 記念物, 公共施設, 寺刹, 祠堂, 窯址, 生活遺構, 塔, 碑石, 岩刻과 石造物 등이 있다.

動產에는 石器, 青銅器, 鐵器 등의 考古資料, 古墳部將遺物, 宗教的 藏置遺物, 彫刻, 書畫 등의 藝術創作物, 什器, 生活用品, 衣食用具 등의 工藝品, 陶磁器類, 瓦磚, 裝飾物 등의 建築部分品, 樂器, 完具, 娛樂物 등의 民藝品, 産業技術 道具, 器械, 發明品 등이 있다.<sup>25)</sup>

그리고 향토자료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향토(인)를 소재로 한 자료 둘째, 향토전승 고문헌 셋째, 향토 소재기관 간행물 넷째, 지방행정자료 다섯째, 기타 향토관련

24) 한국도서관협회 편(1968), 「비도서자료의 정리」, p. 236.

25) 정영래(1977), “향토자료보존의 의의와 방안” 『도서관』 제32권 제3호, p.11.

박물관적자료로 구분하고 있다<sup>26)</sup>.

또한 향토자료는 형태별과 내용별 및 作者別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태별 향토자료에는 印刷記錄, 서사된 記錄, 그림으로 된 記錄, 彫刻된 記錄 등이 있다.

둘째, 내용별 향토자료에는 순수한 향토자료와 향토인의 전개에 관한 자료로 이분할 수 있다.

셋째, 作者別 향토자료는 향토인에 의한 편저자료, 향토관공서의 간행물, 향토소재 기관의 간행물, 종교 기관간행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7)</sup>

상기에서 향토자료의 형태별과 내용별 및 작자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으나, 둘째, 내용별은 순수한 향토자료와 향토인의 전개에 관한 자료로 이분하였는데, 향토인의 전개라는 내용 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향토인은 그 지역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다각도로 여러 형태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제주도를 떠난 모든 이가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제주도지역 외에서 발간되는 제주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이 향토자료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그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자료라고 지칭한다면 과연 한국의 출판물이 대부분이 서울에서 출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모든 자료를 향토자료로 보고 수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지역인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 즉 인구·산업·경제·교육·문화·인물 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문자로 기록된 것 외에도 시청각 자료까지도 함께 향토자료로 보고자 한다. 시대적으로는 과거나 현재를 구분할 필요 없이, 지난 자료는 물론 앞으로 생산될 자료 역시 향토와 관련된 자료면 향토자료로 수집해야 한다.

더구나 역사가 오래된 자료는 수집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자

---

27) 정현태, 전개논문, p. 34.

27) 장대원(1976),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 「도서관」 제31권 제2호, p. 61.

료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손 氏族의 족보를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아무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낱장의 팜플렛에서부터 과거 서당에서 가르쳤던 퇴색된 필사본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sup>28)</sup>

향토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여러 견해를 종합해보면, 시대적으로는 현대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한 것과 과거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구분되며, 형태상으로는 도서관 자료와 박물관 자료에 가까운 형태로 향토 자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 2) 日本 郷土資料의 種類

일본의 도서관에서는 법률 및 의회관계자료, 일본에 관한 자료, 참고도서, 과학기술자료,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간행물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 이민관계 자료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총 사령부에서 생산된 일본관계 문서 수집 사업을 미국 전역을 돌면서 조사, 복제해 오는 방법으로 1999년 들어 22년째 진행되고 있다.<sup>29)</sup> 일본의 향토자료는 공공도서관에서 그 독자성을 강하게 발휘하며, 지역 연구를 하는데 유일한 도구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향토자료가 지역자료로, 지역적인 역사연구도 향토사에서 지방사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 지역사를 중앙의 동향을 반영하는 종속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역사가 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각종 자료(향토)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하는 하나의 장으로 굳혀지게 되었다.<sup>30)</sup>

28) 양상숙(1997), "고문서·고서·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제주도지역 향토자료의 수집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제35회)」, p. 103.

29) 이재선(1997),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소재 한국관계자료 수집과 활용", 「전국도서관 대회주제발표논문집(제35회)」, 한국도서관협회, p. 130.

일본에서 향토자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平井良明은 향토자료의 종류를 도서류와 비도서류로 구분하였다.<sup>31)</sup>

1) 도서류

- ① 도서 : 도서, 낱장본, 팜플렛, 리플렛, 스크랩, 오림자료
- ② 신문·잡지 : 각종신문, 각종잡지
- ③ 변형도서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 카드, 복제사진류
- ④ 문서·기록 : 고문서, 고기록, 근세문서, 근세기록

2) 비도서류

- ⑤ 시청각자료 : 사진, 엽서, 도표, 지도, 포스타, 회화, 환등기용 슬라이드, 영화필름, 레코드, 녹음테이프 등
  - ⑥ 박물관적 자료 : 고고학유물, 민속학유물, 미술품, 표본, 모형, 토산물
- 또한 小島惟孝는 향토자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sup>32)</sup>

- ① 地誌 : 사적 명소, 문화재, 교통, 물산, 하천
- ② 역사 : 정치 변천, 지역 명칭 변천, 산업고고학
- ③ 도판 : 지도, 다리와 건물의 설계도, 정원도, 그림, 사진, 그림엽서
- ④ 문예 : 작품, 작자, 편지 원고
- ⑤ 인물 : 이력, 생몰장소, 거주지, 초상, 편지 등
- ⑥ 현황자료 : 인구, 산업, 각종 통계, 예산 결산 등

小島惟孝는 향토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지역자료(향토자료)를 과거의 박물관적 자료에서 참고자료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향토자료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고문서류, 공문서류, 지도(고지도, 신주

30) 根本 彰(1987), 戦後公共図書館と地域資料 : その歴史的素描. 日本図書館協会 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会 編, 情報公開制度と図書館の自由. 東京 : 日本図書館協会. pp. 62-93

31) 平井良明(1958), “一般郷土資料整理の理論과 實際(上)” 『圖書館界』, 第10卷4號, p.101. 정현태(1991),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 p. 27. 재인용.

32) 小島惟孝(1987), “公立図書館における地域資料(郷土資料)について”, 『圖書館雜誌』 81권, pp. 198-200.

택지도), 서간류, 錦繪, 사진(그림엽서), 신문(지역판, 지방지, 클리핑), 팜플렛(리플렛), 광고(포스타, 소자보), 레코드(테이프, 디스크), 비디오(필름), 일반도서, 잡지(도시지, PR지), 행정자료 등을 들고 있다.

廣瀨 誠은 향토자료와 준향토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준향토자료는 향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관한 副향토자료, 주변향토자료, 관계향토자료라고 하고 있다. 준향토자료에는<sup>33)</sup> 행정구역을 넘어 일체감을 갖는 인접지역에 관한 자료(자연, 인문전반), 문화·산업·경제·교통 등에서 밀접한 지역에 관한 자료(특정 주제에 관한), 역사적으로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지역의 자료(특정 시기에 관계되는), 경계문제를 일으켰던 지역, 경계에 변동이 있었던 지역, 현재 문제 지역, 개척촌, 이민촌, 그 외 이주지, 집단이주자, 대량이주자의 원거주지와 이전 거주지, 자연과학적으로 특별한 현상에 관한 자료, 향토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관한 자료,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관계된 곳·건물·조형물, 일반 박물관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도서류 자료에는 박물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石塚正成은 과거의 박물관적 자료를 광의적인 범주에서 구분하고 있다.<sup>34)</sup>

---

33) 廣瀨 誠(1990), 圖書館と郷土資料. 富山 : 桂書房.

34) 石塚正成(1970), 「圖書館通論」(東京 : 明治書院), pp. 229-243. 정현태, 전개 논문, p. 28. 재인용.

### Ⅲ.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제주도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의 비교분석과 관련하여 일본과 제주도의 관계를 고대사 문헌을 중심으로 관찰해보면, 齊明紀 7년(661) 5월에 탐라국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통교한 이래, 天智紀·天武紀·持統紀의 4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司馬遼太郎은 『耽羅紀行』에서 살펴볼 때 일본의 『延喜式』이라는 법전에는 당시 진상품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耽羅鮓(탐라복) 六斤”이라는 문자가 있어 제주도 해녀들이 오사카(大阪灣)등지로 출가해서 전복을 캐었다고 상상하고 있다. 이를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1천년전 일본과의 교류를 입증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평민인 해녀의 來往만이 아니라 당시 탐라국에 일본 國王과 王子도 往來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국왕으로는 천무기 4년 9월에 難波로 탐라국에 도착하였던 姑如(고여)가 있으며, 耽羅의 王子 阿波伎가 日本에 入朝도 하였다<sup>35)</sup>.

또한 이들이 교류는 해상이란 점을 감안 할 때 쿠로시오 說(黑潮說)을 보면, 이 黑潮는 제주도 남해안 부근을 거쳐 西海와 東海로 빠져나가고, 또 하나는 일본 九州와 四國을 거쳐 태평양으로 나간다. 이 해류는 古代耽羅國, 한국 고대문화, 그리고 일본 고대문화를 잇는 해상 대동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고대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주민이동에 관하여 논의 할 때, 고대 탐라국의 identity(정체성)가 북방대륙 또는 남방해양에서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문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sup>36)</sup>

35)송석범(1993),“濟州島史의 考察”,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제주문화연구』, p. 401.

일본과 제주도와 비교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이 고대사 연구만이 아니라 근·현대사 연구(37)38)에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과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비교연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정체성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6) 제주사 정립 사업추진협의회(1998), 『耽羅, 歷史와 文化』, pp. 139-142.

37) 제주도지역에서 오키나와를 연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창영(1968), “오키나와의 정치” 『제주도지』, 통권 제39호, pp. 23-34.

김문관(1968), “오키나와의 경제” 『제주도지』, 통권 제39호, pp. 35-41.

김형옥(1968), “오키나와의 토양” 『제주도지』, 통권 제39호, pp. 42-51.

양중해(1968), “오키나와의 민속·문화” 『제주도지』, 통권 제39호, pp. 52-62.

김순택(1968), “오키나와의 교육·언어” 『제주도지』, 통권 제39호, pp. 63-71.

高良倉吉(1997) “탐라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1회 제주사 정립 학술 심포지움에서 제주사의 정립은 「琉球史」에서도 환영받을만한 일이라고 했다. 학술심포지움 책자, p. 130.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1997), 「濟州道와 오키나와(沖繩)의 昆蟲 比較展(제52회)」, 濟州島와 오키나와(沖繩)에 棲息하고 있는 昆蟲 比較展을 1997년 3월 3일-5월 31일까지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양쪽 지역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에 의한 昆蟲의 移動 關係 研究도 이루어 졌다. 特別展(第52回) 팸플렛 참고.

38) 오키나와 지역에서 제주도를 연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律波高志(1989), “分居形態 濟州島 家族”, 『오키나와(沖繩)社會 民俗學』, 第一書房.

\_\_\_\_\_ (1985), “濟州島 東部地域의 相續慣行”, 『比較民俗學會報』, 第 3 號 .

上江州均(1986), “濟州島의 民具”, 『오키나와(沖繩)民俗研究』, 第 6 號.

오키나와현 지역에 있는 琉九大學에서는 濟州島學을 設강되고 있으며, 大阪에서 日本耽羅研究會가 1987년 창립되어 제주도에 대한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梁聖宗(1990),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濟州島의 未來像을 위한 오늘의 課題』, 전국학술대회, p. 115. 참고 바람.



# 1. 濟州道와 오키나와縣의 地理的·歷史的 特性

## 1) 濟州道와 오키나와縣의 地理的 特性

제주도는 한반도와는 59km의 폭을 갖는 제주해협을 사이에 마주한 해남  
곳이 최단 지점이 되고, 일본과의 최단 지점은 260km 떨어진 사세보(左世保)  
가 되며, 오키나와현과 제주도는 680km 떨어져 있다. 제주도는 유인도 8개와  
무인도 34개로 되어 있으며, 오키나와현은 일본국 남서단에 위치하여 동서  
1,000km해역에 산재한 160개의 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유인도는  
50개이며 무인도가 110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의 총면적은 2,265km<sup>2</sup>이며,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5km<sup>2</sup>  
로서 오키나와현이 제주도 보다 420km<sup>2</sup> 넓다. 또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47개  
道府縣 가운데서 네 번째로 작은 縣이며, 반면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작  
은 道이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 제일 남단에 위치되어 있으며, 제주도 역시 한국의  
최남단이다. 오키나와현의 기후는 연평균 22.4 °C로 일본에서 제일 온난  
하고 동계에도 10 °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제주도도 역시 한국에서 제  
일 따뜻하며 최고 기온은 35.5 °C, 평균 기온은 14.7 °C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오키나와현에 비해 계절의 향취를 짙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키나와현의 강수량은 연평균 2,037mm로서 일본 본토에 비해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제주도의 강수량은 연평균 1,771.4mm로서 북부 내륙지방의 비  
해 무려 1,079.9mm가 더 많이 내리고 있다.

오키나와현 지형은 거의 산림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형은 여러 개의 섬으  
로 이루어진 활 모양처럼 생겼다. 제주도 역시 한라산이 산림으로 이루어졌  
으며, 1,800여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섬의 형태는 남북보다 동서가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이며, 백록담을 중심으로 극히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하나의 전복을 엮어놓은 형상과 같으며 지질은 玄武岩으로 되어 있다.

오키나와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는 산호초가 있어 육지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바다 속까지 자연의 향취를 맛볼 수 있다. 제주도는 동지나해에서 가장 넓은 대륙붕의 하나이며 북쪽으로는 수심이 100m 미만이며 남쪽으로는 수심 900m의 谷盆으로 형성되었으며 오키나와로 이어져 있다.<sup>39)</sup>

제주도 역시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235km이고, 바다 밑에는 산호초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조류는 359종, 홍조류가 215종, 무척추동물이 627종 있다. 그리고 어종 역시 다른 수역보다 많은 편으로서 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지역의 자연적인 여건으로 볼 때 오키나와현과 제주도의 자연적인 환경은 서로 섬이라는 특징 이외에도 흡사한 점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 2) 濟州道와 오키나와縣의 歷史的 特性

제주도는 ‘三姓神話’<sup>40)</sup>에 나타난 三姓의 씨족이 발전하여 삼씨족이 공동체를 이루어 耽羅國이라 부르게 되었다. 서기 918년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가 건국함에 따라 성주 高自堅이 太子 末老를 고려에 입조케 하여 성주·왕자의 작을 내려 탐라를 한 개의 郡·縣이 아닌 부용국으로 대하였다.

오키나와의 역사를 개관하면 15세기 1429년에 琉球王國으로서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1879년에 메이지 정부의 琉球처분에 의해 오키나와(沖繩)현이 설치되기까지 약450년간 오키나와는 하나의 독립된 류큐 왕국을 형성하

39) 고유봉(1991), “濟州島의 周邊海域의 環境과 低次生産”, 『제주도연구』 제8집, p. 101.

40) 『三姓神話』는 문종 원년(1451)에 완성된 『高麗史』 地理誌에 수록되어 있다.

고 있었다.

그 역사적 바탕에는 奄美(Amami)諸島, 沖繩(Okinawa)諸島, 先島(Sakisima)諸島를 합한 琉球왕국이 탄생했었다.

“琉球王國인 3諸島는 1609년 봄 일본의 지배자인 徳川家康 의 허가를 받아 薩摩 (Satsuma)는 3,000명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고 류큐를 정복하였다. 그 후 류큐왕국은 沖繩諸島와 先島를 그 영역으로 제한하였는데 지금 오키나와현으로 제한되어 버렸다.”<sup>41)</sup>

탐라국 또한 高麗 肅宗 10년(1105)에 고려의 한 지방인 郡으로 개편, 耽羅郡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탐라는 ‘바다를 통해서 주변지역과 깊게 결부되었으며, 한반도의 정치질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비록 왕조로서 탐라가 소멸되었으나 제주도의 독자성은 강하게 유지되었다.’<sup>42)</sup> 고려후기(1270년)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항전을 전개했던 삼별초가 제주도에 주둔했으나 패전으로 인해 몽골이 탐라를 1백년동안 지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몽골이 지배하에서도 제주도는 언어와 전통적인 습속과 문화가 변화되지 않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역시 주민의 말하는 언어는 琉球語와 일본 本土에서 쓰는 언어를 합쳐 일본어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본토의 언어와 류구의 언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도 方言은 본토 언어와 상이점이 있으며,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41) 高良倉吉(1997), “유구사-그 과거 현재 미래” 『탐라사연구』, p. 124.

42) 高橋公明(1997), “탐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사정립학술심포지엄(제1회)』, p. 62.

## 2. 濟州道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實態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수집하고 이를 조사·연구 활동에 심려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자료구성을 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정책을 확립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보자료의 내용과 형태적 특징의 평가기준 등 자료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은 물론, 자료 구성을 위한 정보자료의 선정과 수집에 필요한 성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sup>43)</sup> 따라서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실태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公共圖書館과 郷土資料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sup>44)</sup>

공공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봉사를 수행해야 할 자료의 종류를 보면, 여러 자료를 나열하고 있는데 향토자료는 여러 자료군 중에 별도 독립된 자료로 명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45)</sup>

전국적인 지역망을 갖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반영한 개별 지역문화 기관이기도 하다.<sup>46)</sup>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거의 표준화되어 있으며, 소

43) 이재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p.109.

4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장 제2조 4항.

45) 한국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장 제2조 3항.

46) 정현태, 전계논문, p. 1.

장 자료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지역별 도서관의 특성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sup>47)</sup>

한국도서관 편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성패는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알맞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향토자료를 이용한 지역의 특성 파악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필수적인 임무는 지방,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성격의 연구논문과 공문서를 일반이용자에게 접근 시켜주는 일이다.<sup>48)</sup> 또한 모든 지방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방역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향토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봉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가 그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척도가 된다.

## 2) 濟州道 地域圖書館의 郷土資料 實態

제주도내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13개관과 대학도서관 6개관을 합쳐 모두 19개의 도서관이 있다. 그 중 향토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14개관이며, 그 외 5개 도서관은 한쪽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향토자료 소장은 제주대학교 도서관이 4,500여권, 제주산업정보대학 도서관이 2,000여권, 우당도서관이 1,000여권, 송악 도서관이 1,500여권, 탐라 도서관이 1,800여권이었고, 이 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수백 권의 향토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으나 그 이용 실태는 미온적이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설립 연도를 보면,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1966년, 제주도립 도서관은 1957년, 서귀포 도서관은 1963년에 설립되었다. 그 외의 다

47) 일본도서관협회(1977), 「도서관 핸드북」 제4판, 동경 : 동협회, p.212. 재인용.

48) 헨리 시 캠벨(1985), 「공공도서관개발론」, 이병목 역, 구미무역출판부, p.93.

른 도서관은 1980년 후반에 4개관, 1990년대에 7개관이 설립되어 대다수 도서관의 역사가 짧은 것이 향토자료 소장이 적은 이유가 되었다.

우당 도서관은 족보자료를 비롯하여 다량의 향토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관련 古典籍<sup>49)</sup>을 연차적으로 解題하고 있어 제주사를 정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 공공도서관은 신설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로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濟州大學校 圖書館의 郷土資料 實態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 도서관은 48개관(대학교 21, 대학 11, 교육대학 16)에 이른다. 그 중 향토자료실 또는 고전자료실 운영 실태를 알아보면, 향토자료실 5개관(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 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과 고전자료실 2개관(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모두 7개 도서관에 불과하다. 이는 향토문화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 지방의 민속과 생활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전력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학 도서관이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은<sup>50)</sup> 대학 설립(1952년 5월 27일)된지 14

- 
- 49) 우당 도서관에서는 일제시대 제주를 연구한 제주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번역 출판하고 있다. ① 마수다·이치지(1930),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1930년대 제주도지리·인구·산업·出稼 상황)』, 洪性穆 譯(1995), 우당 도서관 출판. ② 大野秋月(1911), 『南鮮寶窟 濟州島』, 洪性穆 譯(1996), 우당 도서관 출판. ③ 靑柳綱太郎(1905),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1905)』, 洪性穆 譯(1998), 우당 도서관 출판. ④ 洪性穆 譯(1997), 『濟州島의 옛 記錄(1878-1940)』, 우당도서관출판, ⑤ 洪性穆 譯(1997) 『20세기 前半의 濟州島』 우당 도서관 출판. ⑥ 靑靖 , 『濟州島』, 洪性穆 譯(1999), 우당 도서관 출판.
- 50) 제주대학교 도서관 역사는 1999년을 맞이하여 근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도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년에 한 번 모여서 도서관 수서 정책을 논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수

년 뒤인 1966년 4월 18일에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장서개발 정책 수립에 대한 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후 대학의 재정과 정책이 향토자료실을 계속 뒷받침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쉬운 대로 지금 도서관 향토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4,500여 책에 이른다.

지금까지 향토자료실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다른 자료실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실제로 시설이 적절하지 않았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예산 지원도 극히 미미한 형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는 島嶼라는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 한국의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지역성에 기반을 강하게 두고 있다. 지역 사회의 주민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대학을 장래 자신의 지역 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51)</sup>.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주대학교는 지역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라는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방화라는 국내의 흐름에 부응하여 제주대학교는 향토자료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여야한다.

제주발전연구원(1997.11)에서 21세기 제주 도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濟州史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8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sup>52)</sup> 제주도를 연구할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제주도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향토자료를 지역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

---

서 정책의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51) 제주대학교(1995), 「대학 개혁의 방안 연구 보고서-제주대학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연구-」, 정정보본, p. 10.

52) 제주발전연구원(1997.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p. 49.

서관의 향토자료실에 집대성하여 개발한다면, 濟州學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3. 오키나와 縣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實態

#### 1) 日本 公共圖書館의 郷土資料

일본에서는 1926년 동경시 히비야(日比谷)도서관에서는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향토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대정 시대에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후 1920년 향토회가 설립되고, 대정 2년(1913)부터 郷土研究 간행물이 발간하게 된다. 이 당시의 향토자료는 역사가가 발굴한 향토사(민속학, 지지류) 및 향토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 시정 참고도서관(Municipal Reference Library)이 소개되었다. 시정 참고도서관은 都市自治制의 직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는 오늘날 행정자료 서비스와 유사한 봉사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 2) 日本 오키나와縣 郷土資料 實態

오키나와(沖繩)에서의 지방사료(향토자료)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면, 오키나와현이 일본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문서가 적은 이유는 오키나와 戰爭에 의해 전적류가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키나와현교육위원회에서는 문화청으로부터 국고 보조를 받아, 소화 48년

53) 根本 彰(1987), 戦後公共圖書館と地域資料 : その歴史的素描.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編, 情報公開制度と圖書館の自由.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pp. 62-93.



(1973) 이래 각종의 고문서조사를 행하여, 그 성과를 목록으로서 간행하여 왔으나 그것은 全琉(奄美諸島, 沖繩諸島, 先島諸島) 각 지역을 통틀어 조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各市町村史 편집실이 각각의 지역에서 戰禍를 면한 史資料, 특히 지방문서의 발굴에 노력하여 왔다. 오키나와현 지역사 협의회는 오키나와 각지의 지역사 편집관계자들과 상호간의 정보와 자료의 교류를 꾀하고, 史資料의 발굴,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향토사(지역사) 정립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오키나와현 향토자료 전산화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사가 발굴, 수집한 사료는, 계속 중단 없이 진행 중에 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완벽한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sup>54)</sup> 그리고 오키나와현 향토자료 정보화 추진회에서는 오키나와의 시정촌, 字, 家の 같은 지방사료의 잔존현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향토사료의 발굴, 간행자료 및 미간정보를 포함하여 확인하고, 소재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현 지역사 협의회와 협력 하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키나와현에 있는 지역사 협의회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 오키나와현 지방사 자료 목록을 약 3,000점을 전산 입력하였다. 그 내역을 보면 石垣市 1,633점, 竹富町 391점, 平良市 35점, 久米島 150점, 名護市 581점, 國頭村 280점 등을 전산화하였다.

기타 부속섬(離島) 등 비교적 戰禍가 적은 지역에서는 현재도 계속 향토자료(고서, 고문서 등)가 발굴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사진 촬영에 의해 Microfilm 이나 영상매체로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발행된 지역사료를 근거로 text file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全琉의(奄美諸島, 沖繩諸島, 先島諸島)으로 망라된 지방사료 중 翻刻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54) 新城敏男(1997) “沖繩地域 地方史料 情報化 『沖繩研究國際 symposium』 第3回, p. 123.

### 3) 오키나와縣 大學 圖書館 郷土資料

오키나와현에는 지역 도서관이 15개관이 있다. 그중 공공도서관은 10개관이며, 대학도서관은 5개관이 있다.

오키나와현 대학도서관인 경우, 향토자료실이 마련된 곳이 5개관 전부이자관에 향토자료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의 향토자료실 운영을 보면, 오키나와 國際大學인 경우 총 장서량 240,000권 중에 향토자료가 17,000여권(7.08%), 琉球大學의 경우 총 장서량 877,000여권 중 향토자료가 40,000여권(4.56%), 名櫻大學의 경우 총 장서량 85,000여권 중 향토자료가 2,000여권(2.35%), 繩縣藝術大學의 경우 총 장서량 57,000여권 중에 향토자료가 4,000여권(7.02%)을 소장하고 있다. (〈표 24〉 참고)

대학별로 오키나와학을 연구하고 있다. 오키나와학을 연구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류구대학, 오키나와 대학, 오키나와 국제대학, 오키나와 현립대학, 名櫻大學 등에는 각기 오키나와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류구학, 류구문학, 류구방언학, 오키나와 근대사상사, 오키나와 민론, 오키나와 매스컴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외 오키나와현 현청 소속인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오키나와현립 공문서관 등에는 오키나와학 專門家가 근무하고 있다. 이외 각 문화단체에도 오키나와학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어, 오키나와현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에 있는 서점에는 오키나와현에 관한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정부기관이나 각 문화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까지 오키나와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오키나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바탕 위에 연간 오키나와와 관련된 간행물이 300여 종이 발간되고 있다.

## 4. 濟州道와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土資料開發 比較分析

Colling에 의하면, 비교 도서관학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환경조건이나 기타 배경 요인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발전과 현상 및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Donton은 둘 이상의 국가나 문화권, 혹은 사회적 환경에서 도서관과 도서관시스템, 기타 도서관의 제 측면을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라 했다. 따라서 비교 분석이란 지리적, 사회적 환경과 정보 관리기관과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 1) 郷土資料室 運營 實態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료실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방법으로 첫째, 향토자료실 운영실태 둘째, 향토자료 수집 셋째, 향토자료 정리와 보존 넷째, 지역단체 협조와 열람 봉사 등 4개의 범주로 정하여 양 지역을 <표 1-22> 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 (1) 郷土資料室의 實態

향토자료실을 도서관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19개 지 “역도서관 중 10개의 도서관(52.6%)은 별도 공간을 활용하여 향토자료실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고, 6개의 도서관(31.6%)은 한

55) 사공철 편(1994), 전게서, pp. 87-88.

쪽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고 응답했으며, 3개의 도서관(15.8%)은 별도의 서가를 활용하여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은 15개 지역도서관 중 향토자료실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역도서관은 6개관(40%)이고, 한쪽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곳이 6개관(40%)이었고, 서가에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곳이 2개관(6.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향토자료 배가 장소를 참고자료실 안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표 1〉 참고)

그리고 향토자료에 대한 특별 안내판을 만들어 이용자로 하여금 열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내 소장자료 전부를 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대출만 허용하는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대체로 관외 대출의 불가능한 자료는 沖繩學(오키나와학)자료로서 고전적류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 향토자료실의 실태

번호	향토자료실의 실태	제주도	오키나와
①	별도 공간 활용	10(52.6)	6(40.0)
②	한쪽 공간 활용	6(31.6)	6(40.0)
③	별도 서가 활용	3(15.8)	2(13.3)
④	자료실이 없음	0( 0.0)	1( 6.7)
⑤	계획 중	0( 0.0)	0( 0.0)
계		19(100.0)	15(100.0)

오키나와 대학도서관은 일반 향토자료실과 오키나와학 자료실을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오키나와학 연구실에서 별도 마련한 자료는 관내 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 지역 서점마다 오키나와학에 관한 코너가 별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라도 용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도서관 역시 지역 출판의 독자적인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오키나와 관련 자료를 별도 코너에 마련하여 열람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古文書나 古典籍類의 別途 空間 與否

고서란 일반적으로 오래된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古典籍, 古寫本, 古文獻 등의 용어로 통하며, 동양에서는 漢籍이라 부르기도 하며, 西洋書에서는 old book(고서), manuscripts(사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고서의 기준은 간행되거나 필사된 해와 장정, 쓰여진 언어 등을 기준으로서, 한국에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책에 준하며, 중국책은 1911년 이전, 일본 책은 1867년 이전의 것이며 東裝本, 즉 주로 綴裝本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고서의 개념에 준해 제주도지역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질의하였다.

“고문서나 고적류의 보존을 위해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모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키나와현 15개관 중에 6개관(40%)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9개관(60%)은 별도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다. (〈표 2〉 참고)

제주도 지역도서관인 경우 고문서나 고적류의 자료가 없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문서와 고적류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지역도서관에서 고문서나 고적류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표 2〉 고문서나 고적류의 별도공간여부

번호	고문서나 고적류의 별도 공간 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
①	있 다	0	6(40.0)
②	없 다	19(100.0)	9(60.0)
계		19(100.0)	15(100.0)

한 예로 제주대학교 도서관 역시 고서나 고문서를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고 있으며, 기존 소장된 전적류를 합하면 약간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만이라도 별도 서고는 시급하지 않으나 별도 서가만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文化財나 國寶로 指定된 遺物이나 典籍類 所藏與否

한국에서 국보나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적류는 1592년 이전에 인쇄한 활자본이나 목판본, 유명한 사람의 쓴 원고, 고본, 서간 등이며, 1592년 이전에 쓰거나 빼긴 것, 공적이거나 문서의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仁祖까지나 병자호란까지의 책을 귀중본으로 간주한다. 중국은 1505년 이전 것과 1368년 명 이전, 1521년 正德 이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일본 책의 경우 1592년 文祿 이전, 1614년 慶長 이전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sup>56)</sup>

“귀 도서관에 지역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가 소장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를 소장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반면에, 오키

56) 사공철 편(1994), 전계서, pp. 398-399.

나와현 지역도서관은 15개관 중 3개관(20.%)이 문화재나 국보를 소장하고 있었다. (〈표 3〉참고)

〈표 3〉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 소장 여부

번호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 소장 여부	제주도	오기나와
①	있 다	0( 0.0)	3( 20.0)
②	없 다	19(100.0)	12( 80.0)
계		19(100.0)	15(100.0)

그러나 값진 문화 유산을 소장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역 정신 문화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제주도 지역인 경우, 문화재가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日本帝國의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원인과 또한 제주 四·三事件으로 인해 전적, 서적, 판각, 고문서, 민속자료 등이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제주도의 전적류는 극히 小量에 불과한 실정이다.<sup>57)</sup>

고문서는 다른 서책류와 달리 오직 한 장밖에 없는 것이 태반이다. 이런 고문서는 그 가치를 떠나 그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지역도서관에서 고문서, 고서 수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57)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1990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일반 동산문화재로 지정된 전적류는 서적 21책, 고문서 43, 書蹟 49, 繪畵 61, 공예 69, 민속자료 92개가 있다.

## 2) 郷土資料 蒐集

도서관의 존재의 이유나 그 당위성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반영된다. 이는 도서관의 목적과 성격을 나타내며 이용자들의 요구와 관심의 방향을 확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sup>58)</sup>

지역도서관에서 향토자료의 개발과 수집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조상의 얼을 심어주기도 한다.

제주도지역인 경우, 향토자료들은 대다수가 사업 유통망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더구나 향토자료는 그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자료들로서 조상들이 직접 저술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에 의해 그 지역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들도 있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 의해 기록한 자료들은 살아 있는 우리의 역사이고 정신문화의 한 부분이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의 모습을 왜곡 기록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향토자료 수집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 학사<sup>59)</sup> 부분에서도 제주도지역의 문화전승과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와 제주학의 연구를 위한 문헌의 寶庫가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 관련된 제 분야의 연구를 위한 지침서의 역할은 지역대학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도서관 향토자료실도 그 기능과 역할은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과 제주 지역도서관에서 각기 어떤 형태로 수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8) 사공철(1994), 전게서, p. 327.

59) 제주대학 학사부분(1992-2001)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도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제주도지역 사회의 전반에 걸친 각종 향토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고 향토 자료의 영구적 보존 대책을 강구한다.



### (1) 文書化된 收書政策 與否

“自館에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100%) 모두가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인 경우 15개관 중 7개관(46.7%)은 문서화된 수서 정책이 있었으며, 8개관(53.3%)이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원하고 있었다. (〈표 4〉 참고)

〈표 4〉 문서화된 수서 정책여부

번호	문서화된 수서 정책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수서 정책 있음	0	7(46.7)
②	수서 정책 필요	19(100.0)	8(53.3)
③	수서 정책 불필요	0	0
계		19(100.0)	15(100.0)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수서 정책은 도서관 자료 수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알고 지역 자료를 수집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수서에 있어서 포괄적인 수서를 할 것인지 선택적인 수서를 할 것인지를 정해 장서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의 수서 정책을 참조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sup>60)</sup>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작성하는 사서는 우선 지역사 자료를 개발하려는

60) Dewe, Michael(1987), *Management: Objectives, Policies and Finance*. In:Dewe , pp. 97-107.

기본 철학을 가지고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장서 개발 정책은 예산, 전문인력, 기관의 봉사권역, 도서관의 규모와 임무 등에 기초해야 하고, 도서관마다 각기 특성에 맞추어 가능한 수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sup>61)</sup> 수서 정책은 무엇을 주로 입수할 것인지, 무엇을 구입하고, 기증으로 입수할 자료와 입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의 유형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서지, 지역사 저널, 국가 서지, 다른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목적에 합당한 입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수서 정책 마련은 수서 담당 사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장기 근속을 할 수 없음을 명시되어 있다.<sup>62)</sup> 그러므로 수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문서화된 수서 정책이 있으면 일관성 있는 수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郷上資料 蒐集豫算 策定與否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중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은 3개관(15.8%)뿐이었으며,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6개관(84.2%)이었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중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11개관(73.3%)이었으며, 책정이 필요하다는 도서관이 3개관(20%)뿐으로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오키나와현 지역인 경우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상당수 도서관이 이미 예산을 책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3개관(15.8%)만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 외 도서관들도 향토자료 수서 책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1) Cather, James Pat(1991), "The dealer in local materials: the Alabama local history librarian and the out-of-print problem", *Library Acquisition* v.15, pp. 65-76.

62) 한국법령집 공무원 임용령 제6장 제44조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에서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참고)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연간 도서 구입비가 수억원에 이르나, 전적류에 대한 장서 구입비는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표 5〉 향토자료 수집예산 책정여부

번호	향토자료 수집예산 책정 여부	제주도	오기나와
①	예산이 책정됨	3(15.8)	11(73.3)
②	예산 책정 필요	16(84.2)	3(20.0)
③	예산 책정 불 필요	0	1( 6.7)
계		19(100.0)	15(100.0)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예산 책정 시, 향토자료 수집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 주민을 위해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지 않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몇 년 뒤에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지금하지 않아도 불편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잘 할 수 없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가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정책 결정자가 알아야 하겠지만, 향토자료를 수집해야 할 담당 사서는 지속적으로 향토자료 수집 예산을 성문화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 예산 중에 향토자료 수집 예산을 별도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향토자료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자료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

화된 수서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郷上資料와 地域資料의 差異

“향토자료와 지역자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경우, 향토자료와 지역자료가 같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9개관 중 10개관(52.6%)이었고, 8개관(42.1%)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차이에서 같다가 7개관(46.7%), 다르다가 6개관(40%), 모르겠다가 2개관(13.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참고)

〈표 6〉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차이 여부

번호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차이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같다	10(52.6)	7(46.7)
②	다르다	8(42.1)	6(40.0)
③	모르겠다	1(5.3)	2(13.3)
계		19(100)	15(100.0)

제주도 지역도서관 10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7개관이 같다고 답변하고 있어, 양 지역이 향토자료와 지역 자료를 구분 없이 향토자료로 보고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향토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언어나 지역을 초월하여 자관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의 자료 전부를 향토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역시 15개관 중 7개관(46.7%)이 향토자료와 지역

63) 황종건(1987) 『교육사회학』, 형설출판사, p. 187. 황종건은 「향토학교」, 「지역사회학교」, 「Community school」 등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그 뜻하는 바는 같다고 하여, 향토와 지역사회가 같은 의미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료가 같다고 하고 있어 향토자료 수집 범위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해당 지역 행정관할을 범위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博物館的 資料와 郷土資料

“고고학 유물이나 토산품 등 지역에서 채집되는 박물관적 자료도 향토자료로 취급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11개관(57.9%)이 향토자료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라고 응답한 곳도 8개관(42.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이다가 2개관(14.3%)뿐이었으며, 아니라고 응답한 곳은 11개관(78.6%), 모르겠다와 응답을 하지 않는 도서관이 2개관이 있었다. (〈표 7〉참고)

〈표 7〉 박물관적 자료의 향토자료 여부

번호	박물관적 자료의 향토자료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향토자료이다	11(57.9)	2(14.3)
②	향토자료가 아니다	8(42.1)	11(78.6)
③	모르겠다	0	1(7.1)
④	응답 안함	0	1(7.1)
계		19(100.0)	15(100.0)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비해 제주도 지역도서관이 박물관적 자료도 향토자료 보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높다. 박물관적 자료를 향토자료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견해가 지역도서관에서 향토자료 수집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5) 博物館的 資料 圖書館에 蒐集 必要性

“박물관적 자료도 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8>에서 보면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6개관(31.6%)이 박물관적 자료도 수집을 원하고 있으며, 11개관(57.9%)은 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역도서관은 2개관(10.5%)이었다. 오키나와 지역 도서관에서는 수집해야 한다가 1개관(6.7%) 뿐이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지역도서관이 14개관(93.3%)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 지역도서관이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보다 박물관적 자료도 향토자료로 보고 수집해야한다는 경향이 높았다.

<표 8> 박물관적 자료 도서관에 수집 필요성 여부

번호	도서관에서의 박물관적 자료의 수집 필요성	제주도	오키나와
①	수집해야 한다	6(31.6)	1( 6.7)
②	수집할 필요가 없다	11(57.9)	14(93.3)
③	모르겠다	2(10.5)	0
계		19(100.0)	15(100.0)

대부분의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와 박물관적 자료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문헌 중심의 향토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오키나와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향토자료와 박물관자료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그 지역에 박물관이 없는 지역은 박물관적 자료도 그 지역도서관에서 함께 수집하여 지역도서관에서 열람 또는 전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sup>64)</sup>

64) 몇몇 지역도서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 박물관적 자료와 향토자료를 함께 운영하

## (6) 分擔收書 必要與否

분담 수서는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도서관이 중복 구입을 지양하고 자료의 공동 이용, 자료구입의 집중화,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자료의 분담 구입 등을 통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지역 중앙도서관에서 구입, 보관함으로써 작은 지역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알맞는 특성화 자료를 분담 수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는 분담 수서가 필요하다는 19개관중 14개관(77.8%)이며, 필요하지 않다가 4개관(22.2%)이다. 그리고 무응답이 1개관이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의 경우, 분담 수서가 필요한 곳이 14개관(100%)으로 무응답한 1개관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도서관이 분담 수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참고)

어느 한 지역도서관에서 모든 향토자료를 전량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특히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제주도의 경우, 자료를 크게 전적류, 향토자료, 행정자료로 구분하여 분담 수서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고 있는 지역도서관들이 있었다. 첫째, 충남의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는 박물관적 유물을 수집하여 함께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문헌자료와 박물관적 유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문헌은 기존 향토자료실에 배열되어 있으며, 박물관적 자료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학예 연구사가 운영하고 있다. 둘째, 나주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에는 박물관이 없었으며, 박물관적 자료인(유물)들을 문헌중심 향토자료실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유물은 관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헌은 열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9〉 분담 수서 필요 여부

번호	분담 수서 필요 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
①	분담 수서 필요함	14(77.8)	14(100.0)
②	분담 수서 필요안함	4(22.2)	0
계		18(100.0)	14(100.0)

예를 들어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는 해양 관계자료, 감귤 관계자료, 화훼류 관계자료, 시설재배 관계자료, 축산 관계자료, 수산 관계자료(특히 수산양식), 관광 관계자료, 제주환경 관계자료, 족보류 및 고문헌, 제주학 관계자료, 행정 관계자료, 제주교육 관계자료, 제주문학 관계자료 등으로 분담 수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이 전량 전산자료화된다면, 향토자료 보관과 이용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각 분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7) 自館資料 目錄 把握

“국외에 나가 있는 자관의 자료 목록을 파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1개관(5.3%)만이 파악하고 있으며, 18개관(94.7%)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오кина와현의 지역도서관도 15개관(100%) 전부가 국외로 나가 있는 자관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고)



〈표 10〉 자관 자료 목록 파악 여부

번호	국외의 자관 자료 목록 파악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파악하고 있다	1(5.3)	0
②	파악 않고 있다	18(94.7)	15(100.0)
계		19(100.0)	15(100.0)

이 작업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당연 지역 사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이런 자료의 원문을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자관과 관련된 자료가 국외에 어디에 소장되어 있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목록만이라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지역도서관에서 해야 할 책무이다.

또한 이런 자료의 원문을 수집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대표도서관에서 복사본 만이라도 수집하여 각 지역도서관에 분산 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외국 도서관을 인터넷으로 방문해 보면, 그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량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해당 지역명을 사용해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료는 각 시대 地名에 따라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를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향토자료들의 목록만이라도 확인되어진다면, 지역사(향토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표 10〉에 의하면, 유일하게 제주도 지역도서관 1개관만이 외국에 소장된 자관 자료 수집을 위해 목록을 파악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65) 自館의 지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로는, 첫째 국내사이트의 경우, 서울대학교 < <http://solatent.snu.ac.kr/korea/koreanology.html> >, 둘째 국외사이트의 경우 < <http://info.anu.edu.au/elisa/elib...iects/EastAsia/Gen/Asia/Asia.htm> > 등이 있다.

서는 하와이 대학에 제주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 관련 자료의 목록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제주도 지역도서관에 미처 수집하지 못한 자료는 복사본이라도 갖추어 불러는 의도였으며, 또한 제주대학교 도서관과 소장된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대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제주도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제주도 자료의 소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에 관한 문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한 1998년 일본 나카무라 대학교수에 의하면 일본 대학도서관에는 일본 학자들이 제주도를 연구한 문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였다. 그 교수가 귀국 후, 일본 대학에 소장된 제주관련 목록과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제주관련 문헌 목록을 보내 왔다.<sup>66)</sup>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8) 定期刊行物 定期的 資料寄贈 與否

기관간행물은 국가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발간되는 공적인 간행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 형태의 인쇄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간행물은 학술적인 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에 의해 간행된 자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관간행물 중에는 그 지역에 기초조사와 통계자료와 같은 매우 유익한 자료가 있으며, 이런 자료들은 지역주민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그 지역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도 된다.

“지역내 기관이나 단체들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기증 받고 있습니까?”

66) 일본 도서관에 소장된 제주관련 자료 현황은, 국회도서관에 79 종, 북강시종합목록편에 18종, 일본 대학 도서관 장서 편, 57종 총 154종에 이르고 있다. 상세 목록은 <부록3> 을 참조 바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인 경우 19개관 중 13개관(68.4%)이 정기적으로 기증을 받고 있었으나, 6개관(31.6%)은 기증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 반면에 오키나와현의 경우, 15개관(100%) 모두가 정기적으로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기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참고)

행정자료들은 대다수가 기증자료이며, 한정 부수로 생산되거나 일회성인 자료가 허다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散失되거나 없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지역 내 기관들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기증 받는 것은 향토자료 수집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표 11〉 정기간행물 정기 기증 여부

번호	정기간행물의 정기적 기증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기증 받고 있다	13(68.4)	15(100.0)
②	기증 받고 있지 못하다	6(31.6)	0
계		19(100.0)	15(100.0)

일본의 경우, 1950년 도서관법 제3조에 향토자료, 지방 행정자료, 미술품, 레코드, 필름류의 수집에 관한 내용의 법으로 만들어졌다. 동조 제7항에 정기간행물(지방 행정자료 포함)을 명시했으며, 同法 제9조에는 정부는 都道府縣에 설치된 도서관에 정부에서 간행한 간행물을 2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각 행정기관과 단체에서 충실히 수행한 결과, 오늘의 오키나와현의 향토자료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향토자료를 전량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기증한다고 하더라도, 단명 자료인 팜플렛이나 기타 소책자들은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역과의 관련성으로 자

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자료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이런 단명 자료는 상업적 유통망을 통하여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9) 行政官廳으로부터의 資料要請 與否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역정보에 대한 참고 문의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5개관(26.3%)만이 참고 문의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 요청이 없었다가 14개관(73.7%)으로 나타났다.

(〈표 12〉 참고)

〈표 12〉 행정관청 자료 요청 여부

번호	행정관청 자료 요청 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
①	있 다	5(26.3)	8(53.3)
②	없 다	14(73.7)	7(46.7)
계		19(100.0)	15(100.0)

오кина와현 지역도서관의 경우, 8개관(53.3%)이 정보 요청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개관(46.7%)은 요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間歇的으로 지역 행정관청이나 기타 단체에서 지역정보를 얻기 위해 제주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 地域圖書館에서 各種團體에 資料蒐集 要請與否

“지역내 각종 단체나 조직에 정식으로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19개관 중 9개관(47.4%)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있었으며, 9개관(47.4%)은 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15개관 중 13개관(86.7%)은 정식으로 각종 단체나 조직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었고, 2개관(13.3%)은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표 13〉 참고)

대체로 지역 행정기관에서나 문화 단체 자체에서 발간된 문헌들이 지역도서관으로 보내기는 하나, 단행본 형식의 자료들만이 한정된 부수를 지역도서관에 보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3〉 지역도서관에서 각종 단체에 자료 요청

번호	지역도서관에서 각종 단체에 자료 요청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공식적으로 요청함	9(47.4)	13(86.7)
②	요청하지 않음	9(47.4)	2(13.3)
계		18(100.0)	15(100.0)

주: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1개관은 응답이 없었음.

.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단체나 기관에서 일회성(단명 자료)으로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 형식의 자료들과 행정자료들도, 지역도서관에는 중요한 정보가 됨을 각 지역단체와 기관에 공문으로 알림과 동시에 자료 요청을 하여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단체에서 발간되고 있는 자료의 수집은, 도서관 자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향토자료 수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구, 단체와 지역기록 보존소, 의회의 각부서, 지역사회 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만 향토자료 수집이 용이할 것이다.

### 3) 郷土資料 整理와 保存

향토자료를 입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기 주어진 분류규칙에 따라 정리과정이 요구된다. 향토자료가 입수되면 구체적으로 정리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각기 향토자료의 특성에 비추어 분류, 목록, 별치, 보존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향토자료는 특성상 전적류(고서, 고문서), 팜플렛, 시청각 자료 등 비도서 자료를 주요한 영역으로 갖고 있으며, 일반 도서자료와는 구별이 된다.

이를 전제로 오키나와현과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정리와 보존에 관한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 (1) 別途 分類規則 與否

“향토자료를 별도의 분류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 지역도서관 모두가 별도 분류 규칙이 없는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인 경우는 별도 분류규칙을 정하고 있는 곳이 15개관 중 7개관(46.7%)이었으며, 8개관(53.3%)은 별도 규칙이 없었다. (〈표 14〉 참고)

〈표 14〉 향토자료에 대한 별도 분류 규칙 여부

번호	향토자료에 대한 별도 분류 규칙 여부	제주도	오키나와
①	있 다	0	7(46.7)
②	없 다	19(100.0)	8(53.3)
계		19(100.0)	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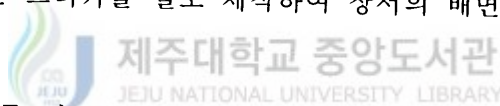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인 경우, 별도 분류표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7개

관은 일본 십진분류표(NDC)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 8개관 중 일부는 일본 십진분류표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당 부분은 자관에 따라 분류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인 경우, 전 도서관이 한국 십진분류법(KDC)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토자료만을 위한 별도 분류 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전 도서관이 별치 기호를 주고 있었으며, 제주도 지역에서 향토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향토자료에 “C(chēju)”(제주의 영문표기 첫글자)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지역도서관은 향토라는 단어의 첫 자 “향”이라는 별치기호를 주고 있다. 향토자료 분류는 090을 전개하여 사용하는 방법, KDC 本表(000-999)를 사용하고 별치 기호를 冠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 전국 국립대학 향토자료실 운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북대학교의 경우 ‘향토’라는 스티카를 별도 제작하여 장서의 배면과 표지에 부착하고 있었다.



일반 향토자료를 한국 십진분류표에 의해 분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고서나 고문서의 경우에 일반 향토자료 분류 지침에는 한계가 있다. 고서의 별도 정리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향토자료의 정리 방법과 一連의 相關性·統一性·連結性 등에 유의해야 한다.<sup>67)</sup> 고서나 고문서 장서가 소량인 지역도서관은 제외하더라도, 다량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인 경우 별도 분류 규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토자료로서 현대적 자료에 한한 것은 기존 자관에서 쓰고 있는 일반 자료 분류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문서와 특수자료로 된 것은 형태상 특별한 문서분류표의 편성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sup>68)</sup>

장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대학도서관 내에서도 고서만 전담하는

64) 윤병태(1983), 「한국고서정리법연구」, 서울, 利久出版社, p. 66.

68) 국회도서관사서국(1982), 「도서 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p. 654.

사서가 있으며, 미국인 경우 역시 Rare books와 Special Materials를 위한 독립된 도서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고서 정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sup>69)</sup>

그리고 향토자료실이 별도 마련된 도서관은 자료를 배치할 때, 전집이나 한 권의 도서 중에 일부분이 지역 향토 내용이 있는 자료라면, 그 내용의 비중이 많은 곳에 비치하면 된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한 부를 더 구입하여 향토자료실에 비치하고 일반 서고에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러치 못할 때는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비치하고, 목록을 만들어 비치하는 방안도 있다.

## (2) 個人所藏資料 地域圖書館에 委託 保管

지역도서관이라면 조상들이 축적해 놓은 문화유산인 고전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보존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개인 소장자료를 위탁보관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봤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를 지역도서관에서 위탁 보관해 주는 방안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12개관(63.2%)은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으며, 7개관(36.8%)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상기 내용의 결과를 보면, 15개관 중 9개관(60%)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5개관(33.3%)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표 15〉 참고)

---

69) 윤병태(1983), 전계서, p. 66.



〈표 15〉 개인 소장자료 지역도서관에 위탁 보관

번호	개인 소장자료 지역도서관에 위탁 보관에 관한 질문	제주도	오키나와
①	바람직하다	12(63.2)	9(60.0)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7(36.8)	5(33.3)
③	모르겠다	0	1(6.7)
계		19(100.0)	15(100.0)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모두 바람직하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개인의 소장품을 위탁 보관해주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자료가 훼손 또는 散失을 막고,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각 가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장 자료를 꼭 지역도서관에서 위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열람자들의 잦은 열람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분실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탁 보관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원본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열람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3) 物理化學的 措置與否

“향토자료를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해 보존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인 경우 19개관 전부가 물리화학적 보존 조치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9개관(60%)이 물리화학적 방법을 쓰고 있으며, 6개관(40%)은 하지 않고 있었다.

상기에 제시하고 있는 향토자료라고 하는 것은 紙類에 한정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료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지류,

필름류, 마그네트류 및 기타 특수 기록물들이 있다. 지류에 대한 물리화학적 인 보존 방법, 필름류에 대한 보존방법, 마그네트 類의 보존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료의 양에 따라 물리화학적인 방법이 결정된다.

〈표 16〉 물리화학적 조치여부

번호	향토자료에 대한 물리화학적 조치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현
①	한 다	0	9(60.0)
②	안한다	19(100.0)	6(40.0)
계		19(100.0)	15(100.0)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류의 보존에 못지 않게 전자 자료의 보존에 관심과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sup>70)</sup>

〈표 16〉에서 양쪽 지역 자료 보존에 대해 알아 봤다. 도서관 자료의 보존에 관해서는 보존공간, 산성지인 종이의 지질과 보존과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1949년 시카고에 미국 중서부의 10개 대학도서관에 공동으로 보존시설이 마련되었고, 영국은 稀貴圖書를 대학과 국가 보존도서관에 이관하였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이라도 일정한 시설 규모를 정하여 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문학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있다.<sup>71)</sup>

70) 정선영(1994)은 전자 매체에 관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는 Microform 자료, Magnetic 자료, 광자기디스크, 사진류 등의 보관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 문헌 정보학보』 제 4권.

71) 사공철 편(1994), 전계서, p. 895.

#### 4) 地域 團體 協助와 閱覽奉仕

도서관은 봉사지역 이용자들의 전통이나 신념, 사상 등을 표현한 문화적 유산이나 그들의 문화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도서관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자료의 보유 자체는 보전이란 의미를 넘어, 그 지역 이용자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 문화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에서는 자관의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정보를 얻어 갈 수 있게 유도하는데 열람 참고 봉사의 의의가 있다.

##### (1) 郷土資料가 地域文化 發展 기여도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과 전통을 갖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문화 연구는 대부분 중앙·지배권력 중심 인물·사건 중심의 이해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조명하는데도 중앙 중심의 선입감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문화 연구는 “그 문화 주체가 자신들의 역사진행 과정에서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인 동시에 ‘생명력’이며, 과거의 지역문화와 그 전통은 현재의 지역민으로써 느끼는 향토적 동질성(지역성)·공감대의 기반 위에 형성되어야 바람직한 지역문화”<sup>72)</sup>가 이루어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향토자료가 지역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매우 기여한다가 12개관(63.2%)이며, 보통이다가 4개관(21.1%)이고, 중간 정도가 2개관(10.5%)으로 나타났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매우 기여한

72) 이해준(1998), “지역문화의 방향과 과제”, 「고문화」 제52집, p. 164.

다가 11개관(73.3%)이고, 보통이다가 3개관(20%)이며, 무응답이 1개관이 있었다.(〈표 17〉 참고) 양쪽 지역 대부분 지역도서관들은, 향토자료는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17〉 향토자료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번호	향토자료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제주도	오кина와현
①	매우 기여한다	12(63.2)	11(73.3)
②	보통 기여한다	4(21.1)	3(20.0)
③	중간 정도이다	2(10.5)	0
④	대체로 기여하지 못한다	1( 5.3)	0
계		19(100.0)	14(93.3)

(2) 郷土資料 蒐集을 위하여 機關・團體에 定期 訪問

“지역내 기관이나 단체들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방문 수집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5개관(26.3%)이 정기적으로 향토자료를 기증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으며, 14개관(73.7%)은 방문하지 않고 있었다. 오кина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7개관(46.7%)은 직접방문하고 있었으며, 8개관(53.3%)은 방문하지 않고 있었다. (〈표 18〉 참고)

지역내 기관과 단체들의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행사 자료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률이 높은 것들이며, 거의 상업 유통을 통해서 구입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이들 자료들은 한번 발행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간되거

나 부정기적인 형태로 발간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역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꼭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8〉 자료 수집을 위한 정기적으로 방문

번호	향토자료 수집을 위하여 기관과 단체를 정기 방문	제주도	오키나와
①	정기 방문한다	5(26.3)	7(46.7)
②	정기 방문 안 한다	14(73.7)	8(53.3)
계		19(100.0)	15(100.0)

### 3) 地方議會로부터 資料要請과 參考奉仕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로부터 지역정보에 대한 참고문의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1개관(5.3%)이 자료요청이 있었으며, 1개관은 무응답하였고, 17개관(89.5%)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3개관(20%)이 지방의회로부터 참고 문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고 있으며, 12개관(80%)은 참고 문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다. (〈표 19〉 참고)

지방의회로부터 질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방의회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거나, 지역도서관에 자료가 빈약하여 참고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결론도 된다.

그러나 참고 봉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의 도서관은 자료 정리·보존업무가 주가 되었으나, 오늘날의 도서관은 봉사업무가 주가 되고 있다. 참고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선 그에 따른 훌륭한 참고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표 19〉 지방의회에서의 자료요청과 참고문의

번호	지방의회에서의 자료요청과 참고문의	제주도	오기나와현
①	있 다	1(5.3)	3(20.0)
②	없 다	17(89.5)	12(80.0)
계		18(94.1)	15(100.0)

주: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1개관은 응답하지 않았음.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향토자료실을 별도 마련하여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지역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함이기도 하다.

#### (4) 地域住民에게 貸出與否

“귀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향토자료를 관외 대출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5개관(26.3%)은 대출하고 있었으며, 14개관(73.7%)은 대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오기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11개관(73.3%)은 대출하고 있었으며, 2개관(13.3%)은 대출을 안하고 있었다. (〈표 20〉 참고)

오기나와현 지역도서관은 보존용 1부는 관외 대출을 금하고 있으며, 복사본이나 복본에 한해서 관외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한 권밖에 없는 자료라면 복사 제작하여 관외 대출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물론 대학 교직원에게도 관외 대출을 금하고 있으며 관내 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다수 도서관이 관외 대출을 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인 경우는 자관에 소장된 향토자료들은 다른 자료와는 달리 생산 자체가 한정 부수이며, 복본 수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분실이나

훼손이 되면 추가 보충이 어렵다.

〈표20〉 지역 주민에게 향토자료대출여부

번호	지역 주민에게 향토자료 대출 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
①	한 다	5(26.3)	11(73.3)
②	안한다	14(73.7)	2(13.3)
③	기 타	0	2(13.3)
계		19(100.0)	15(100.0)

그러나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에서 열람 서비스와 대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만약 한 권밖에 없는 도서라면 복사본이라도 갖추어야 하며, 복본을 구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향토자료실에 별도 소장본과 일반 서고에도 소장하여 적극적인 관외 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느냐에 중요성을 두는 것보다 도서관 자료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지역도서관 중에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을 1998년 일년동안<sup>73)</sup> 이용하였던 사람들의 지역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제주도 지역 주민 138명을 제외한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전주, 청주,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이며, 국외에서 제주도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도 34명에 달하였다.

향토자료를 열람한 현황을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공무원, 교육자, 해외

73) 제주대학교도서관 향토자료실에 비치된 방명록은 교외인사만 기록하였다(1998.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현황이다)

교포, 예술가, 정치가 등이 이용하였다. 일부 여행자를 제외하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대학 교수 34명과 타 지역 대학원 학생들이 제주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향토자료 유별 이용 현황을 보면, 제주도 지역개발 중 관광과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농업분야에는 감귤과 화훼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제주도의 지역특성과 관련된 향토자료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제주경제, 교육, 토속음식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제주도 전통문화 관련 자료 이용자들로서 그 수가 115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무속, 민속, 제주신화 등은 국내외 학자들이 고루 연구하고 있었으나, 지역 향토지는 마을 리장과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지역 마을 향토지 발간을 위해 고증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 향토자료 장서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5) 圖書館 相好貸借 與否

도서관 상호대차의 개념은 각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마치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어느 도서관에 있는 기존자료를 타 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나 복사물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를 알아 봤다.

“지역내 공공도서관(대학 또는 문화 단체)과 상호 대차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 중 상호대차를 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5개관(26.3%)이며, 상호대차를 안 한다가 14개관(73.7%)이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15개관 중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도서관이 14개관(93.3%)이며, 안 한다가 1개관(6.7%)에 불과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표 21〉 참고) 오키나와현 지역도서



관이 제주도 지역도서관보다 상호대차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도서관 상호대차 여부

번호	도서관 상호대차 여부	제주도	오кина와현
①	한 다	5(26.3)	14(93.3)
②	안 한다	14(73.7)	1(6.7)
	계	19(100.0)	15(100.0)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인적, 설비, 시설자원, 지식, 전문성과 정보 등의 실제적인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전산화 정보망을 통한 정보접근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현재까지 균형있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제주도지역 공공도서관은 1990년도 이후 신설된 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본을 서로 교환하는 상호 대차가 우선 시급하다고 하겠다.

#### (6) 圖書館 및 其他團體 訪問

“지역사(향토) 연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는 지역 대학도서관을 1순위, 지역 공공도서관 2순위, 지역박물관 3순위, 지역 향토연구가 4순위, 기타 문화단체 5순위로 선택하였다. 오кина와 지역도서관에서는 제1순위가 지역 공공도서관, 제2순위가 지역 대학도서관, 제3순위가 지역박물관, 제4순위가 지역향토가, 제5순위가 기타 문화단체를 선택하였다.

(〈표 22〉 참고)

제주도 지역도서관이 지역 대학도서관을 제1순위로 선택한 내용을 보면, 19개관 중 9개관(47.3%)이다. 그리고 오키나와현에서는 제1순위로 지역공공도서관을 선택한 내용은 15개관 중 14개관(92.8%)이다.

〈표 22〉 지역사(향토) 자료를 위한 도서관과 단체 방문 순위

번호	지역사 자료를 위한 도서관과 단체 방문 순위	제주도	오키나와현
①	지역 공공도서관	2순위	1순위
②	지역박물관	3순위	3순위
③	지역 대학도서관	1순위	2순위
④	지역 향토연구가	4순위	4순위
⑤	기타 문화단체	5순위	5순위



이것은 제주도 지역도서관들의 경우 주로 대학도서관이 다른 곳보다 향토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들은 지역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에 향토자료를 다른 곳보다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 5) 質問紙 綜合分析 및 郷土資料 所藏 現況

### (1) 質問紙 綜合分析

이상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대한 비교 분석하였다. 질문지 항목은 모두 22개항을 4개의 범주로 정하였다. 양 지역 비교는 百分率로 계산하여 그 값이 높은 지역이 향토자료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22개 항목 중 2개 항목 〈표 1〉 과 〈표 22〉 는 수

치 평가에서 제외하고, 20개 항목에만 적용하여 단순 비교 평가를 하였다.

제주도 지역과 오키나와현 지역에 대한 각 항목별 비교 분석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지역이 오키나와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20개 항목 중, 2개 항목(10%)이며, 오키나와현이 제주도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20개 항목 중 12개 항목(60%)이었고, 양쪽 지역이 같은 수치의 평가 항목은 6개 항목(30%)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지역이 긍정적인 항목 수는 2개 항목(10%)이며, 오키나와현 지역은 12개 항목(60%)으로서 제주도 지역 비해 오키나와현 지역이 10개 항목(50%)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 지역보다 오키나와현 지역이 향토자료실 운영 면에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참고)

〈표23〉 제주도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질문지 종합 분석

번호	실문지 종합 분석	항목 수	제주도	오키나와
①	향토자료실 실태	2	0	2
②	향토자료 수집	8	3	5
③	향토자료 정리와 보존	6	1	5
④	지역단체와 열람봉사	4	같음	같음
계		20	4(20%)	12(60%)

주: 각 항목 퍼센트가 20% 미만의 편차는 같은 것으로 간주함

## (2) 濟州地域 圖書館과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現況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과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에 소장된 총 장서량과 그 중 향토자료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하였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는 19개관중 전 도서관이 응답하였으나,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15개관중 8개관만 총 장서량과 향토자료 소장분에 응답해 왔다.

제주도 지역도서관 19개관에 소장된 총 장서량은 1,089,608권이며, 제주도 지역 향토자료는 19,710권으로서 총 장서량 대비 1.76%이었다. 반면에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 중 질문에 응답한 8개관에 소장된 총 장서량은 2,167,462권 중 향토자료는 247,089권으로서 총 장서량 대비 9.96%를 소장하고 있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 소장 향토자료는 총 장서량 대비 1.76%에 비해,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9.96%으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 현립 도서관이 소장된 향토자료가 오키나와현 전체 지역도서관 향토자료 247,089권 중 146,244권으로 무려 59.18%를 소장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표 24〉 참조)

이는 향토자료 개발을 위해 오키나와현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하여 대표도서관을 선정하고 정책적인 지원하에 향토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24〉 濟州道 地域圖書館과 오키나와縣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現況<sup>74)</sup>

제주도 지역도서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도서관명	총장서수	향토자료	%	도서관명	총장서량	향토자료	%
동녘도서관	12.444	124	0.99%	沖繩國際大學	240.000	17.000	7.08%
서귀포문화원	43.063	876	2%				
서귀포시립	31.000	467	1.5%	名櫻大學附屬	85.000	2.000	2.35%
서귀포학생관	35.403	849	2.39%				
세화도서관	13.917	236	1.6%	宜野灣市立	197.000	11.037	5.6%
송악도서관	29.053	223	0.76%				
애월도서관	11.900	170	1.42%	沖繩縣立圖書館	466,344	146,244	31.3%
우당도서관	103.000	2,738	2.65%				
일출도서관	14.500	215	1.48%	糸滿市圖書館	128,266	5.000	3.8%
제남도서관	13.791	342	2.47%				
제주관광대	20.000	100	2%	琉球大學校圖書館	877.000	40.000	4.56%
제주교육대학	52.114	235	0.45%				
제주대학교	450.488	4,500	0.99%	浦添市立	116.852	21.808	18%
제주도서관	85.731	4,000	4.66%				
제주산업정보대	40.000	935	2.33%	繩縣藝術大學	57.000	4.000	7%
탐라대학	15.000	100	0.66%				
탐라도서관	60.204	1,800	2.98%	계	2,167,462	247,089	9.96%
한라대학	28.000	300	1.07%				
한수폴도서관	30.000	1,500	5%				
계	1,089,608	19,710	1.76%				

74) 〈표24〉에 의한 향토자료 현황 중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15개관중 7개관은 향토자료 현황을 응답하지 않아 현황에서 제외 시켰음.

## IV.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開發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및 活性化方案

도서관은 적절한 시설, 이를 수반하는 자료, 운영 예산과 관리를 위한 인원 등이 4대 필수조건이다. 앞장에서 보듯이, 오키나와현에 비해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역사적으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운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의 비교 분석법은 여러 형태의 조건을 감안해서 비교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쪽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바람직한 지역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개발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더구나 현대화와 정보화에 밀려, 지역 향토자료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정책면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편이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대학의 증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대학의 모든 정책결정에서 향토자료의 관심은 뒤로 처지고 예산 지원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이 모든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현실이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 1.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開發에 관한 問題點

#### 1) 郷土資料室 運營 實態와 問題點

첫째, 향토자료실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으나, 그 장소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한 예로 제주도 지역에서 장서량이 제일 많은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도, 설치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용자가 향토

자료실을 찾으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외진 한쪽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 전적류 보관장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비해 전적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1개관도 없다. 어렵게 수집한 전적류가 일반 자료와 함께 배가되고 있어 훼손은 물론 참고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표 2〉와 〈표 3〉참고)

## 2) 郷土資料 蒐集의 問題點

첫째, 문서화된 수서 정책의 부재이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비해 문서화된 수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이 1개관도 없다. 이런 현상은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결과도 되겠지만, 현재의 빈약한 향토자료 개발에도 많은 지장을 줄 것이다. 문서화된 수서 정책의 부재는 향토자료 운영은 물론 앞으로 향토자료 수집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일반 학술 자료 구입비는 수억 원에 달하나, 향토자료 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표 5〉참고)

셋째, 국외에 있는 자관 목록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향토자료는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 외에서 발간된 자료들이 상당량에 이른다. 더구나 일본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연구한 문헌이 상당량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관 資料源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향토자료 개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표 10〉참고)

넷째, 각종단체에서 발간하는 향토자료에 대해 자료 요청이 없다. 지역 향토자료중 지방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상업 유통망을 통해 수집한

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속한다. 거의 대다수가 한정 부수로 생산되고 일회성으로 나오는 경향이 짙다. 또한 관공서에서 생산된 행정자료나 기타 향토자료를 지역도서관으로 기증하겠다는 인식 또한 희박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중 상당도서관이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 (〈표 11〉 참고)

다섯째, 외국에 산재해 있는 제주도 관련자료 수집에 제주도 지역도서관이 무관심하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제주도에 관련된 자료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 전 대학에서 한국 자료를 분담 수집하고 있고, 하와이 대학에서는 제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sup>75)</sup> 이들에 비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들이 향토자료 수집에 대해 무관심 한다면, 앞으로 제주도를 연구하기 위해 외국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여섯째, 제주도 지역도서관 사서들이 향토자료 수집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제주도에 출판된 간행물들이 지상에 소개되고, 그런 자료가 도서관에 수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그 자료가 전량 도서관에 수집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향토자료(지역자료)는 거의 비매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점을 통하여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향토자료 소장자와 수집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선불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소장자가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자료 수집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

75)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분담 수집하고 있다. Columbia university이 경기도의 자료를, Harvard University와 California Berkeley대학이 충청남북도의 자료를, University of Hawaii가 제주도의 자료를, University of Washington이 경상남북도의 자료를, University fo Southern California가 전라남북도의 자료를 분담 수집하고 있다.



### 3) 郷土資料 整理와 保存의 問題點

첫째, 일반 향토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쓰고 있으나, 전적류에 대한 정리는 별도 분류 지침이 없다. 일반 향토자료에 비해 전적류 정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료로서, 일반 향토자료 정리와 구분되어야 한다. <표 14>에 의하면,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은 15개관 중 7개관이 별도 분류 규칙을 정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1개관도 없다.

둘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들이 손실 및 훼손되고 있다. 이는 소장자들이 자료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고, 지역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 방법 역시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 비해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15>와 <표 16> 참고)

### 4) 地域 團體 協助와 閱覽奉仕 問題點

첫째, 향토자료의 관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에 소장된 향토자료들은 관외 대출을 하고 있지 않다. 자관에 소장된 향토자료 중에 여러 권이 있는 자료라도 관내에서 열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향토자료 역시 관내 대출만 하고 있으며 관외대출은 하고 있지 않다. (<표 20> 참고)

둘째, 도서관간의 향토자료 상호대차가 안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에서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도 지역도서관과는 서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주학 연구 방법의 문제점에서 중앙의 문헌자료에만 의지하여 연구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중앙자료의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못지 않게, 진작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향토자료 발굴(76)에 빈약하다.

## 2.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開發에 관한 改善 方案

오키나와현에 비해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역사적으로나 도서관 정책에 따른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빈약한 실정이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라면 그 지역 사료를 고루 선정 수집해야 함은 물론 조상들이 축적해 놓은 문화유산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인 고전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보존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유산 중 상당량의 고문서와 帖冊類의 전적자료가 그 지역에 어떻게 보관 또는 전승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각 가정이나 가문(종갓집 중심)에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비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토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향토자료를 발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도서관의 사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국가적으로 전적류 수집과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1) 郷土資料室 運營에 따른 改善

첫째, 향토자료실은 한번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아래 지속적인 지원만이 소기의 성

76) 박찬식(1991), "한말·일제시대(1876-1945)." 『제주도사 연구』 제1집, pp. 279-291.

77) 전적류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신문에 그 대로 묶어 있으며, 케비넷 또는 사과 상자에 그대로 방치하여 거의 산실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허다하였다. 그 외 몇몇 보관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일이 담긴 귀중한 자료로 인식하여 일년에 한번씩은 햇빛을 쬐이고 있는 곳도 더러 있었다.

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향토자료실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해도, 지금의 제주도 지역도서관 시설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지역에 제주학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는 '향토자료관'의 설립도 구상해볼 만하다.

둘째,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과 제주도 지역도서관 비교 분석에서 보면, 고전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 제주도지역은 고전 자료실이 1개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78)</sup>

장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은 훌륭한 학자들을 도서관에 끌어들이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는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자명하다. 제주학 연구를 위해 제주도 지역 도서관마다 고전 자료실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지역 대표 도서관이나 제주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제주도 지역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전적류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고 봉사하는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2)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蒐集 改善

첫째, 각 지역도서관 향토자료실에 지금까지 수집된 장서현황에 의한 자료원 작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서현황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간한 자료의 수집방향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도내 발행처별로 자료원을 작성하면, 정기간행물 중 결호를 확인하여 원생산지에 전화 혹은 서신으로 연락하여 자료를 보충할 수도 있다.<sup>79)</sup>

78) 古典資料란 현대자료와 대칭(對稱)되는 개념으로서 古書, 古文書, 古地圖 등 고서관자료 가운데 현대 이전 자료를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소장현황으로 보면 고전자료는 대부분 古書에 한정하고 있다. 고전자료의 개념은 이재철, "한국에서의 고전적 분류고",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창간호(1975), pp. 22-24를 참고바람.

79)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에서는 1970-1998년까지 제주도내 발간된 향토자료원을 지방일간지를 근거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총 장서량은 1,821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류별 현황을 보면 총류(106) 철학(33) 종교(18) 사회과학(669) 순수과

둘째, 지금까지는 제주도 지역도서관들이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소극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내 신문에 정기적으로 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은 결과, 향토자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紙上에 신간 향토자료 발간 내용이 있으면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장 명의로 자료의 저자나 편찬 책임자에게 축하편지나 축전을 보낸다면, 자료를 발간한 집필자나 발행처에 호감을 줄 수 있어 지역도서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자료 수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자료 수집 방안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게시판에서 각종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향토자료 수집자는 정기적으로 향토자료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결호된 자료 목록을 연재하여 보충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개인 소장자료 수집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고전류가 많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많은 전적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나 고서의 원본을 기증받지 못하더라도, 복사본을 수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를 복사한 후 주인에게 돌려줄 때, 고서에 대한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解題해 주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외 향토지(古蹟) 수집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대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는 제주도와 관련 있는 자료 중에 제주 관련 자료를 지역도서관에서 복사하여 제책하여야 한다.

---

학(27) 기술과학(75) 예술(54) 어학(26) 문학(507) 역사(160) 기타(146)에 이른다. 상기 자료원을 근거로 기존 자료의 소장여부를 확인하고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일곱째, 향토자료 수집 시기의 적시성이 필요하다. 향토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간행물이라 해도 출판과 동시에 절판되었거나 품질되면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는 대다수가 극히 한정 부수로 발간되고 있으므로, 시기를 놓쳐버리면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오늘의 자료가 영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내일로 가면서 자료 또한 고전화해 가는 필연적인 운명을 지니고 있어, 자료 수집의 적시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3) 郷土資料 整理와 保存 改善

첫째, 지역의 문화 유산 중 상당량의 고문서와 帖冊類의 전적자료가 그 지역에 어떻게 보관 또는 전승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각 가정이나 가문(종갓집 중심)에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비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토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소장 자료 목록작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학과 관련된 목록이 집대성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를 연구하는 도내외 학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장서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주학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에서 수합하여 체계적으로 目錄化하는 방법이 시급하다.

셋째, 제주도 외에 산재된 제주관련 향토자료 복사와 활용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규장각 자료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제주사를 조명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료이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제주도 관련 고문서나 고서를 보기 위해 ‘규장각을 방문’<sup>80)</sup>하는 예가 많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규장각 외

80) 제주도와 관련된 고서 검색은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규장각 인터넷 사이트 : <<http://kyujanggak.snu.ac.kr/3-1.htm>>

국사편찬위원회 : <<http://kuksa.nhcc.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정신문화 연구소원, 국립중앙 도서관 등에 소장된 제주 관련 자료가 상당량에 이르고 있다.<sup>81)</sup> 규장각 전적류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각 연구자마다 똑 같은 사료를 각자 반복해서 복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시간적인 면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도서관에서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제주 관련자료를 수렴하여 복사하거나 기타 전자매체(스캐너 등)를 통한 방법으로 가공한 후, 지역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전적류 보존이 필요하다.<sup>82)</sup> 제주도 지역의 고문서는 4·3사건 또는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도 각 마을에서는 고문서들이 확인되고 있다. 각 가계에 현존된 문서 보관 상태는 비과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즉, 건물의 증·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유실은 물론 문서를 캐비닛이나 장롱 속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 지역의 전적류 보전을 위해 지역도서관에서 개인 소장자들에게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향토자료 위탁 보관 제도가 필요하다. 도서관 내에 특별 서고를 마련하여 각 마을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위탁 보관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야 문서의 훼손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자료 소장자가 고문서 또는 고서를 문헌 정보기관인 도서관에 보관을 의뢰하거나 기증하면 자유스런 열람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특별 열람증을 발부하여 그 후손에게 까지 전승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 <<http://www.man.ac.kr/k-liblibraryintro.htm>>

이외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인터넷으로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81)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제주관련 문헌을 확인해 보면 단행본 41책, 고문서 및 지도류 38 책 총 78책에 이른다.(〈부록 1〉 참고) 이는 최근 전산 입력된 자료 현황임으로 지속적인 목록 확인이 필요하며, 원문을 복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82) 보존이란 자료를 서고에 쌓아 두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을 수집하는 단계부터 이들을 적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당대와 후대에 널리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뜻이 들어 있다.

김용래(1989), 「기록보존 3호」, p. 11.

여섯째, 제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古文書, 典籍, 書跡 등을 복사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은 이 고장에 관한 문헌이기 때문에 지방 특색이 함께 스며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문헌이라도 濟州島學 연구자들을 위해 복사본만이라도, 지역도서관에 분산 소장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천재 지변이나 기타 사고로 원전이 없어지더라도 그 내용만은 보존되어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조명하는데 일익을 해야 한다.<sup>83)</sup>

#### 4) 地域住民에게 閱覽 및 參考奉仕 改善

첫째, 향토자료 전시회가 필요하다. 향토자료 전시회는 지역도서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전시회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연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회 시기는 대학인 경우는 대학 개교 기념행사 중이나 기타 학생행사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주도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한라 문화제”<sup>84)</sup>와 같은 축제 기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시회 참관은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각종 문화 단체들과 연합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시회가 있기 전까지는 각자 자관의 향토자료가 얼마나 각기 소장되어 있는지 몰랐으나,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종합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서로 복본된 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관청 자료를 전시한다면, 행정관청이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83)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 제주향교에 소장된 전적류를 1987년도 일부 복사 제작하여 연구자들에게 열람하고 있다. 제주도학을 연구하는 데 자료의 량이 아니라, 신뢰 있는 고증자료가 있느냐가 그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 제주향교 자료 복사본이 96책에 이른다.(〈부록 2〉참고)

84)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1967년 제9회 한라문화제 기간(11월 1일-9일)에 향토자료 500여 책을 전시했다. 당시 도서관장을 역임하고 있던 한창영 교수는 제주도 향토자료 목록을 제주대학교 신문에 연재하기도 했다.

있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 역시 각 가계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와 고문서 등의 향토자료를 소홀히 관리하여 散散되어 버릴 것을 염려하여 도서관으로 기증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시회는 지역 주민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 관람으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게 되며, 향토애를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향토자료에 대한 參考奉仕가 중요하다. 참고봉사는 전형적인 도서관 이용안내를 넘어서, 개별적인 지역정보를 향토자료 담당사서에게 문의가 있을 때 자관의 자료만이 아니라 타관에 소장된 자료 목록을 발췌하여 상호 대차 방안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濟州學 연구에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자료의 정리 미흡에 있다. 제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이 도서관에 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1945년 이후의 제주 現代史 자료에서도, 제주인들이 풀어야 할 4·3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이 너무 빈약하다. 4·3 사건 연구의 문제점 및 과제의 자료 중 기존에 공개된 자료의 정리와 더불어 미공개 자료의 추적, 공개 요구 등 학문외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중 미공개된 미국 측 자료들 중에 제주 관련자료가 지금도 상당량 미국 측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측 자료 역시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자료 요청이 있어야 한다.

## 5) 豫算 및 專門人力 確保 改善

첫째, 향토자료 수집 예산이 필요하다. 제주도내에서 발간했던 각종 자료들이 지역도서관 소장 여부를 보면,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수백 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5>에 의하면, 향토자료 수집 예산이 책정된 제주도내 도서관이 3



개관에 불과하며,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도서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도서관 역시 별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고정된 별도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각종 향토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순발력 있게 적기에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체제와 형태별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향토자료를 담당해야 할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향토자료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의 전적류에 대한 제반 교육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 3.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開發에 관한 活性化 方案

제주도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을 대상으로 두 지역에 대한 향토자료 개발에 관해서 비교 분석 결과, 오키나와현에 비해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실 자료 수집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건 조성의 문제점과 도서관의 역사적 배경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인 경우, 신설 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체계적으로 향토자료를 개발한다면 보다 나은 발전을 기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는 종합발전계획 학사부문에서, 21세기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연구를 기본으로 연구해야 하며, 지역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토자료실이 활성화되어야 제주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各種 郷土資料 開發에 따른 活性化

첫째, 원시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원시자료인 한 장의 팜플렛도 오래 보관하면 귀중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퇴색된 팜플렛의 외형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팜플렛에 기재된 행사를 통해서도 시대에 따라 문화의 변천사를 감지할 수가 있다.

우리 나라 지역도서관의 사서에 비해 서구 선진국의 도서관 사서들은 '원시자료(primary records, raw materials)' 수집을 중요시하고 있다.<sup>85)</sup> 이런 자료들은 선진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나 현재에서도 계속 생산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곳 저곳 굴러다니는 행사 팜플렛과 전단 및 벽보판마다 학생 문화 행사 광고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원시자료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오늘의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도서관에서는 그 지역에 각종 행사 팜플렛을 수집해야 한다.

둘째, 지방 일간지에 연재되는 향토자료성 오림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일간지 자체가 향토자료이므로 신문에 연재되는 제반 내용들을 '오림 자료'<sup>86)</sup>로 활용하면,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오림 자료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와 지역문화, 경제, 사회 전반을 싣고 있다. 그 중 기사를 주제별로 스크랩하여 두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향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연재물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예가 많이 있어

85) 김정근, 이용재(1997), "도서관과 사이버스페이스 : 우리 도서관문제의 기본, 현장, 현 단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34권 제2호, pp. 43-74.

86) 오림 자료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오려낸 기사, 영국에서는 cutting 또는 press cutting 이라고 한다. 그리고 출판물에서 찢어낸 1매의 종이,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 질 때는 오림 기사, 오림 자료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공철 편(1996), 『문헌정보학용어 사전』, p. 256.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런 오림 자료를 목록화하여 두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향토자료실에서는 오림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방지를 여분 있게 받아 봐야 한다.

셋째, 구술 자료의 개발이다.<sup>87)</sup>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술 증언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구술의 역사는 계획된 인터뷰를 통해 테이프를 이용하여 구술 형태로 수집된 정보를 말한다. 구술역사 장서는 개인적인 면담과 회고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건, 민요, 민속, 다른 자료에 대한 기록을 얻을 수 있다. 종이로 된 문헌은 언젠가는 발굴할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보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없어지고 만다. 이런 귀중한 구술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향토자료 보존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영상자료의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영화제작소를 비롯, 여러 군데 있다.<sup>88)</sup> 그리고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자료는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하여 방영한 자료만도 상당량에 이른다. 제주 지역 자체 편성 프로그램은 제주도의 향토 문화 특성, 지리적 특성, 산업 구조의 특성 등을 반영한 관심 있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주어 제주도 지역의 제반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sup>89)</sup> 이런 자료들은 그 지역에 훌륭한 시청각 자료이며 그 지역의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섯째, 향토자료 개발을 위한 지역도서관과 각종 문화 단체간의 학술

87) Llwyd, Rheinallt and Geraint Evans(1987), "Oral History Recordings" In : Dewe pp.309-344.

88)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1991) 「한국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89) 오성보(1996), "CATV 지역채널을 활용한 지역정보 서비스제공에 관한 모델개발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제주대학교, p.112.

발표회가 필요하다. 향토자료 개발을 위한 도서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공공도서관과 그 지역 대학도서관은 물론 다른 사회 문화 단체 또는 뜻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토자료 개발에 따른 서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 2). 郷土資料 開發에 따른 期待效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서 거론했듯이, 향토자료가 집대성 될 때 제주 도만이 갖고있는 독특한 문화가 향상 발전되고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토자료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경제·교육·문화·역사 등 사회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측면에서 연계되어야 한다.

그 결과, 기대되는 제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중한 문화유산이란 값나가는 골동품만 아니라, 각 家系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찮은 전적류 역시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고문서(과거) 또는 향토자료(현대)가 집대성된다면 그 자료를 총체적으로 조직화되고, 자료검색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됨으로써 '제주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은 현재 출판되는 도서뿐만이 아니라, 고문서를 소장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고문서의 훼손 및 유실을 방지해 주므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고문서는 전통문화의 훌륭한 유산이며, 물증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를 수집·정리·가공·보존·축적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봉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바르게 문서를 수집·정리한다는 것이 보다나은 봉사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도서관끼리 상호 협조하여 자료 수집과 기존자료의 복사 교환

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제주도 관련자료를 복사본만이라도 수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넷째, 중앙중심의 문화정책으로 각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향토자료 개발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향토자료가 지역도서관에 충분히 갖추어 진다면,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되며, 그 지역이 현안 문제의 해결은 물론 제주도를 연구하는데 충분한 문헌을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V. 結 論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정책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고, 지역도서관 향토자료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의 실태를 제주도 지역도서관과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향토자료실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향토자료 수집 예산은 도서관 예산에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 문서화된 수서 정책이 필요하며, 인근 지역에 박물관이 없으면 박물관적 자료도 수집 전시해야 한다. 또한 향토자료 정리는 자료에 별치 기호를 부여하여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토자료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도서관 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를 각 가계에서 잘 보존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향토자료의 대출에 있어서는, 제주도 지역도서관 대다수가 관외 대출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향토연구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관외 대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지역도서관은 향토자료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도서관끼리 상호대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자료 개발 면에서는, 문헌자료만이 아니라 구술자료의 개발도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도서관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는 자료들이 제주도 지역도서관에 전량 수집되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외에 나가 있는 자료들은 제외하더라도, 도내 학자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목록만이라도 공개하여 이를 문헌정보기관인 도서관에서 전산화한다면, 제주도 문화를 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지역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제주도 향토자료를 집대성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 정책 차원에서 제주도 향토자료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향토자료는 도내 서점마다 제주자료 코너를 마련하여 독자로 하여금 수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자료 코너가 각 서점마다 마련된다면,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까지 쉽게 제주관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점을 찾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향토자료에 관심을 가짐으로 애향심이 함양될 것이다.

향토자료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이며 독특한 문화를 조명해 보는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그 지역 문화유산인 향토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정리·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토자료를 통해 역사속에서 숨겨져 있는 조상의 얼과 삶을 습득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 또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무 중심의 경험주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론의 개발보다는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에 필요한 실무적인 연구나 개별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 參 考 文 獻

### 1. 國內文獻

- 고유봉(1991), “濟州島의 周邊海域의 環境과 低次生産”, 『제주도연구』, 제8집
- 국회도서관사서국(1982), 『도서 분류법의 비교와 분류의 실제』
- 김상호(1989), “향토문화론”, 『새교육』 제10호, 대한교육연합회
- 김정근, 이용재(1997), “도서관과 사이버스페이스 : 우리 도서관문제의 기본, 현장, 현단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 노재봉(1997), “국가기록물 보존의 중요성,” 『기록보존』 제10호,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박찬식(1991), “한말·일제시대(1876-1945).” 『제주도사 연구』, 제1집
- 백기량(1991), 『미국내 한국관련기록 및 서류목록(영문판)』, 한국국제교류재단
- 사공철 편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한국도서관협회
- 서재천(1987), “초등학교 지역사회학습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고찰”, 『사회과 교육』 제 20호.
- 양상숙(1997), “고문서·고서·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제주도지역 향토자료의 수집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 대회주제발표논문집(제35회)』, 한국도서관협회.
- \_\_\_\_\_ (1997), “대학 도서관 향토자료실 발전방안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15집
- \_\_\_\_\_ (1998), 『향토자료실 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와 과제』 부산민족문화사
- 오성보(1996), “CATV 지역채널을 활용한 지역정보 서비스제공에 관한 모델개발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제주대학교.
- 윤병태(1983), 『한국고서정리법연구』, 서울, 利久出版社,
- 이기백(1987), “향토사 연구와 그 방향”, 『대우 재단 소식』.



- 이재선(1997),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소재 한국관계자료 수집과 활용”, 「전국도서관 대회주제발표논문집(제35회)」, 한국도서관협회.
- \_\_\_\_\_ (1997),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택준(1970년), “향토자료의 수집보존” 『도서관』, 제25권 3호
- 이해준(1998), “지역문화의 방향과 과제,” 『고문화』, 제52집
- 장경호(1991), “구미도서관 향토자료실을 중심으로” 「91년도 봄철 공공도서관 세미나 : 향토문화와 공공도서관」, (서울 : 공공도서관협의회)
- 장대원(1976),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향토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제31권. 제4호
- 정선영(1994), “전자 매체에 관한 보존 방안”, 『광주대 문헌 정보학보』, 제 4권.
- 정영래(1977), “향토자료보존의 의의와 방안” 『도서관』 제32권 제3호
- 정장호(1989), 『지리학사전』, 경인문화사
- 정현태(1995), “공공도서관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연구”,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3), 「제주도 전적류 종합조사보고」, 『탐라문화』 제3호
- 제주발전연구원(1997.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 제주사 정립 사업추진협의회(1998), 『耽羅, 歷史와 文化』
- 한국도서관협회 편(1968), 「비도서자료의 정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1991) 「한국 전통문화 영상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 헨리 시 캠벨(1985), 「공공도서관개발론」, 이병목 역,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 황종건(1987) 『교육사회학』, 형설출판사
- \_\_\_\_\_ (1992), “향토 학습을 통한 향토교육 방안 연구 -신영지방을 중

- 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사회과 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高橋公明(1997), “탐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사정립학술심포지엄(제1회)』
- 高良倉吉(1997), “유구사-그 과거 현재 미래” 『탐라사연구』.

## 2. 外國文獻

- 廣瀬 誠(1990), 圖書館と郷土資料. 富山 : 桂書房.
- 根本 彰(1987), 戦後公共圖書館と地域資料 : その歴史的素描.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の自由に関する調査委員會 編, 情報公開制度 圖書館の自由.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 石塚正成(1970), 「圖書館通論」(東京 : 明治書院)
- 小島惟孝(1987), “公立圖書館における地域資料(郷土資料)について” <圖書館雜誌> 第8號
- 新城敏男(1997) “沖繩地域 地方史料 情報化」沖繩研究國際 symposium」第3回.
- 日本圖書館協會(1977), 『圖書館 hand book』 第4版, 東京 : 同協會
- 平井良明(1958), “一般郷土資料整理의 理論과 實際(上)” 『圖書館界』, 第10卷4號
- Cather, James Pat(1991), “The dealer in local materials: the Alabama local history librarian and the out-of-print problem”, \_\_\_\_\_ Library Acquisition v.15
- Dewe, Michael(1987), *Management: Objectives, Policies and Finance*, In:Dewe
- Kent, Allen et al.(ed.by), 『En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 6』, (New york : Marcel dekker, 1975),
- Llwyd, Rheinallt and Geraint Evans(1987), “Oral History Recordings” In : Dewe

## Abstract

###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Local Materials in Cheju Community Libraries

-- *Compared with that of Okinawa Community Libraries*

by Yang, Sang-suk

This study sees its purpose in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indigenous Cheju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so-called *Cheju-ology* or local studies actively carried out lately by suggesting the ways in which to invigorate the developing of local materials for Cheju community libraries with its problems analyzed and settled.

This purpose leads to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those cases of Cheju community and university libraries, what conditions the community libraries including university libraries of Okinawa, Japan lie in and how well they are run. For Okinawa is similar to Cheju in terms of culture and geography.

The ways in which to solve the problems and activate the development in respect to the local materials for Cheju community librari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develop the local materials, we are required to set up a separate morgue for the local materials, to appropriate the local data collecting fixed cost in the library budget and to make a codified policy for the collecting of local materials.

In addition to that, it is mandatory that the ordinary people be led to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cherish the local data as a sort of valuable heritage.

And also the local materials of Cheju community libraries should be computerized and, as easily as possible, lent and borrowed with those of the other libraries.

The oral data are as worthy of careful attention as the written when it comes to the collection of local materials. It would be of great use if any of the community or university libraries were to hold seminars periodically,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reveal and settle the problems through discussions.

The local materials are a community's unique history, which enables us to see through its indigenous culture. Thus it must be as critical a task as anything else to collect, conserve, arrange and study them.



<질문지 1>

지역도서관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87)

도서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양상숙입니다. 제주도 지역도서관(대학, 공공포함)의 향토자료 개발실태와 향토자료실 설치·운영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의 정성스런 고견을 바탕으로 제주도 지역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향토자료 개발의 유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장님께서 평소에 생각(意見)하시는 향토자료 개발에 관한 내용을 부담 없이 첨부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래의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설문지가 제때에 회수되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장님의 건강과 귀 도서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1999년 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 도서관  
사서 양 상 숙 올림

E-mail- ssyang @cheju.cheju.ac.kr

Fax -064-756-2205

---

87) 제주도 지역도서관에 보낸 설문지임.

## 質問紙

### ◆ 향토자료개발실태

1. 향토자료실이 어떤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향토자료실이 별도 마련되어있다( )
  - ② 자료실에 한쪽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
  - ③ 서가에만 따로 모아 놓았다( )
  - ④ 향토자료실이 없다( )
  - ⑤ 계획 중에 있다 ( )
2. 향토자료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자료수 ( )
  - ② 향토자료실 (약 )평
  - ② 도서관 총건평( )평
3. 귀도서관에 총 장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총장서량 ( )점
4. 향토자료와 지역자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니다 같다고 생각한다 ( )
  - ② 다르다고 생각한다( )
  - ③ 모르겠다 ( )
- 5.향토자료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기여하고 있다 ( )
  - ② 보통으로 기여하고 있다 ( )
  - ③ 중간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 )
  - ④ 대체로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 )
  - ⑤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6. 고전자료실이 귀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문서, 고서, 등)
  - ① 설치되어 있다 ( )

- ② 되어 있지 않다(        )
- ③ 설치가 필요하다 (        )
- ④ 설치필요성이 없다 (        )

◆ 수집정책

7. 향토자료 수집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
- ③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필요치 않다(        )
- ④ 별도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으며, 별도 책정이 필요치 않다(        )

8. 고고학 유물이나 토산품 등 지역에서 채집되는 박물관적 자료도 향토자료 입니까?

- ① 향토자료이다 (        )
- ② 향토자료가 아니다(        )
- ③ 모르겠다(        )

9. 박물관적 자료도 도서관에 수집해야 합니까?

- ① 박물관적 자료도 도서관에서 수집해야 한다 (        )
- ② 도서관 자료가 아니다(        )
- ③ 모르겠다(        )

10. 각지역에 알 맞는 특성화 자료를 분담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 ② 없다 (        )

11. 국외에 나가 있는 자관의 자료 목록을 파악한다면?

- ①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② 목록만 필요하다 (        )
- ③ 필요 없다 (        )

◆ 정리 및 보존

12. 도서관자료의 분류에 별도의 분류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13. 고문서나 고적류의 보존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14. 오래된 자료의 보존을 위해 물리화학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5.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를 지역 도서관에서 대신 보관해주는 방안은?

- ①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

16. 귀 도서관에 지역 문화재나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나 전적류가 소장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 행정기관 협력

17.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역정보에 대한 참고문의가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있다면 무슨 내용의 문의가 많은가?

( )



18. 지역의회로부터 지역정보에 대한 참고문의가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있었다면 무슨 내용의 문의가 많은지?

( )

◆ 각종 단체나 조직과의 협력

19. 지역내 각종 단체나 조직에 정식으로 자료수집 협조요청 ·무를 띤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0. 자료수집 협조요청을 위해 지역내 각종 단체나 기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1. 지역내 기관이나 단체들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할애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향토자료실 이용에 관해서

22. 지역에 공공도서관과(대학 또는 문화 단체) 상호 대차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상호 대차하고 있다( )  
② 상호 대차를 하고 있지 않다( )  
③ 상호 대차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

23. 귀 도서관에 지역주민에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 ②아니오( )

24.그 지역사(향토) 연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 하시겠습니까? ( 순서대로 )

- ① 지역공공도서관 ( ) ② 지역박물관( ) ③ 지역대학도서관( )  
④ 지역향토연구가 ( ) ⑤ 기타 문화단체( )

기타

향토자료실 운영에 대한 귀도서관에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 바랍니다.

- ①  
②  
③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지 2>

地域圖書館 郷土資料 開發に關する 設問調査協力88)

郷土資料 擔當 先生

こんにちは.

私は 大韓民國 濟州道 國立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修士課程に 在學中の 學生で日本の沖繩縣の公立・縣立・市立圖書館と大學圖書館の郷土資料の發掘 狀態と郷土資料室の設置・運營狀況を調査するため、本 實態調査を実施して います。.

先生の誠意の込めた顧見に基づいて、私の大學の圖書館郷土資料室及び濟州 地域公共圖書館の地域的特性に従って望ましい郷土資料發掘の類型を摸索しよ うと考えています。.

郷土資料の内容についての先生の普段のお考えをお聞かせ願います。 貴 圖書館での郷土資料室の運營狀況を参考にさせていただきたく、よろしければ 次の質問に簡略にお答え願います。.

参考に本研究遂行のため募集された資料は本來の研究目的以外の目的として は利用しないことを約束します。

どうか、設問紙が回収されて研究に有用に反映できるよう、ご協力をお願い します。先生の 健康と貴 圖書館の繁榮を祈願いたします。.

1999年 月 日

大韓民國 濟州道 濟州市 我羅洞 1番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司書 梁 相 淑

ヤン サン スック

E-mail - ssyang@cheju.cheju.ac.kr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朴 龍 垸

88)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으로 보냈던 설문지임.

## 質問紙

### ◆ 郷土資料發掘實態

1. 郷土資料室はどんな形態で設置されていますか?
  - ① 郷土資料室は別に設置されている( )
  - ② 資料室の一部分に設置されている( )
  - ③ 書庫に別に収集されている( )
  - ④ 郷土資料室は無い( )
  - ⑤ 計画中である( )
  
2. 郷土資料室が 設置されていたらその規模はどのぐらいですか?
  - ① 資料の数( )
  - ② 郷土資料室(約 坪)
  - ② 図書館の總建坪( 坪)
  
3. 貴図書館の總 藏書量はどのぐらいですか?
  - ① 總藏書量( )点
  
4. 郷土資料と地域資料が違うと思いますか?
  - ① いいえ. 同じと思う( )
  - ② 違うと思う( )
  - ③ 分らない( )
  
5. 郷土資料が 地域文化の發展にどのぐらい貢獻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
  - ① どても貢獻している( )
  - ② 普通に貢獻している( )
  - ③ ある程度は貢獻している( )
  - ④ あまり貢獻していない( )
  - ⑤ 全然貢獻していない( )
  
6. 古典資料室が貴 図書館に設置されていますか? (古文書, 古書など)
  - ① 設置されている( )
  - ② 設置されていない( )
  - ③ 設置が必要だ( )
  - ④ 設置の必要性がない( )

◆ 収集政策

7. 文書化された 収書 政策を持っていますか?

- ① 持っている( )
- ② 収書政策を持っていないが, 必要だ( )
- ③ 収書政策も持っていませんが, 必要ない( )

8. 郷土資料 収集のため別の予算が策定されていますか?

- ① はい( )
- ② 別の予算が策定されていないが, 予算策定が必要だ( )
- ③ 別の予算が策定されているが, 必要はない( )
- ④ 別の予算が策定されていないが, 別の策定も必要ない( )

9. 考古学遺物とか土産品など, 地域で採集される博物館的な資料も郷土資料として取扱っていますか?

- ① 郷土資料である( ) ② 郷土資料ではない( ) ③ 分らない( )

10. 博物館的資料も図書館で収集すべきだと思いますか?

- ① 博物館的資料も図書館で収集すべきだ( )
- ② 図書館資料ではない( )
- ③ 分らない( )

11. 貴 図書館に済州道關聯資料を所蔵していますか?

- ①有る( ) ②無い( ) ③有れば( 点)

12. 各地域に適当な特性化資料を分擔・収集する必要性はあると思いますか?

- ① 有る( ) ② 無い( )

13. 國外にある自館の資料日録を把握していますか?

- ① 把握している( ) ② 把握していない( )

◆ 整理及び保存

14. 図書館資料の分類に別の分類規則を適用していますか?

- ① はい( ) ② いいえ( )

15. 古文書とか古蹟類の保存のための特別な場所が設置されています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16. 古い資料の保存のための物理・化学的な措置を摸索しています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17. 個人が所蔵している伝統的書籍類を地域図書館で代りに保管する方案は？

① 望しい( ) ② 望しくない( )

18. 貴 図書館に地域文化財とか國寶として指定された遺物とか伝統的書籍類が所蔵されていますか？

① 有る( ) ② 無い( )

◆ 行政機關 協力

19. 行政官廳から地域情報に對しての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有ればどんな内容の問い合わせが多いですか？

( )

20. 地域議會から地域情報に對しての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有ればどんな内容の問い合わせが多いですか？

( )

◆ 各種 團體とか組織との協力

21. 地域内の各種團體とか組織に正式に資料収集の協助要請文を送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22. 資料収集の協助要請のため地域内の各種團體とか機關などを定期的に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① はい( ) ② いいえ( )



〈부록 1〉

奎章閣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sup>89)</sup>

1. 單行本 編
2. 牧刑名簿 編
3. 文書類 및 地圖 編

1. 單行本 編

- 1 濟州牧養章程 / [刊者未詳] 18973-奎 1900
- 2 濟州兵制烽臺摠錄 / [刊者未詳] 4485-奎
- 3 濟州三邑軍制 / [刊者未詳] 4485-奎
- 4 濟州邑誌 / 제주군 10796-奎
- 5 濟州邑誌 / 제주군 10797-奎 1899
- 6 濟州邑誌 / 제주군 915.149-J389-想白古
- 7 題奏全稿抄本 / 이종원 5130-6-1-3-古 1864
- 8 [濟州島民殺害한日本漁民의再談判要請] /  
부산항감리서 24210-奎 1891
- 9 [濟州島防穀事] / [刊者未詳] 26061-奎 1897
- 10 旌義 / [刊者未詳] 10482-奎 1872
- 11 旌義邑古誌 / 정의군 10798-奎 1863
- 12 濟州啓錄 / 비변사 15099-1-5-奎 1846
- 13 濟州舊基碑 / 이관명 10237-奎
- 14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 / 내장원 20670-奎 1900
- 15 濟州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畝因該司關文改打量庚子以後  
/ 내수사 20586-奎 1725
- 16 濟州大靜旌義邑誌 / [刊者未詳] 17436-奎

89) 규장각 소장 자료중 제주기록(복사본) 외 51책은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 奎章閣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 17 濟州島民 殺害에 관한 공문기록철/ 부산항감리서  
24210-奎 1891
- 18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 제주군 915.149-J389-想白古
- 19 濟州牧郡應入支用會計冊 / 탁지부 21034-奎 1903
- 20 旌義邑誌 / 정의군 10798-奎 1863
- 21 耽羅故事 / 제주목 7839-奎 1860 \*
- 22 耽羅別啓錄 / 비변사 15099-1-5-奎 1846
- 23 耽羅賓興錄 / 규장각 4792-奎 1794
- 24 耽羅賓興錄 / 규장각 6232-1-3-奎 1791
- 25 耽羅事例 / [刊者未詳] 4255.5-3-古 0
- 26 耽羅誌 / [이익한 915.149-T153-想白古
- 27 耽羅誌 / 이태호 915.149-Y64t-v.00-一蓑古
- 28 耽羅誌 / 이태호 915.149-Y64t-想白古
- 29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臚本 / 제주부 21550-奎 1894
- 30 大靜 / [刊者未詳] 10482-奎 1872
- 31 大靜郡古誌 / 대정군 10799-奎 1899
- 32 大靜郡邑誌 / 대정군 10799-奎 1899

### 2. 濟州 牧刑名簿

- 33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123-奎 1901
- 34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78-奎 1900
- 35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78-奎 1900
- 36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재판소 26416-奎 1901
- 37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43-奎 1900
- 38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43-奎 1900
- 39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44-奎 1900
- 40 濟州牧刑名簿 / 제주목 21244-奎 1900
- 41 濟州裁判所刑名簿 / 제주재판소 21108-奎 1908



## 奎章閣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 3. 文書類 및 地圖

- 42 濟州查辦大員朴의 船貫川費先貸에 關한 件]  
/ 부산항감리서 24069-奎 1891
- 43 濟州查辦大員朴의 船貫川費先貸에 關한 件]  
/ 부산항감리서 24069-奎 1891
- 44 濟州 / 의주시재판소 21239-奎 1907 KOR
- 45 濟州牟代租成冊 / 전라감영 16297-奎 1894
- 46 濟州牧關報牒 / 비변사 15125-奎 1845
- 47 濟州牧 三郡各公地松木雜木調査成冊 / 내장원 20675-奎 1901
- 48 濟州牧 三郡各廢止公海成冊 / 내장원 20673-奎 1901
- 49 濟州牧 邑死人恤典題給成冊 / 제주목 16958-奎 1861
- 50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光緒三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2-奎 1877
- 51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光緒三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2-奎 1877
- 52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咸豐九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1-奎 1859
- 53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咸豐九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1-奎 1859
- 54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咸豐五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0-奎 1855
- 55 濟州牧 還穀會計成冊 : 咸豐五年十二月日供役 / 제주목 16150-奎 1855
- 56 濟州民命案 / 부산항감리서 24210-奎 1891
- 57 濟州民命案 / 부산항감리서 24210-奎 1891
- 58 齊州閔子祠堂記 / 양신 3698-7-10-奎중 1622
- 59 濟州兵制烽臺摠錄 / [刊者未詳] 4485-奎 0 KOR
- 60 濟州查辦行中船貫川 / 부산항감리서 24069-奎 1891
- 61 濟州 三邑上錢穀會計成冊 / [刊者未詳] 20359-奎 1853

## 奎章閣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 62 濟州 三邑上錢곡會計成冊 / 제주목 19381-1-6-奎 1862
- 63 濟州漁採案 / [刊者未詳] 23127-奎 1884
- 64 濟州漁採條約 / 민중목(閔鍾默) 23008-奎 1890
- 65 齊州二堂記 / 진덕수 3225-26-30-奎중 1864
- 66 濟州裁判所刑事已決未決時囚成冊  
/ 제주재판소 26259-奎 1907
- 67 濟州出來後運歲貢馬 / [사복시 26010-奎 1878
- 68 濟州太穀事報告案 / 제주목 20711-奎 1898
- 69 大靜郡各公土調査成冊 / 내장원 20671-奎 1900
- 70 大靜縣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畝折價放買庫員落種 數及  
/ 대정현 18460-奎 1726
- 71 大靜縣案內需司已上田案中混入私田畝別件成冊 / 내수사 20592-奎 1726
- 72 大靜縣案付內需司已上田案中有文券混入私田畝別件 成  
/ 내수사 21958-奎 1726
- 73 大靜縣案付內需司奴婢無後已上田畝起陳打量成冊  
/ 대정현 18612-奎1726
- 74 旌義郡各公土調査成冊 / 내장원 20672-奎 1900
- 75 濟州牧郡經費出給支用明書 / 탁지부 21034-奎903
- 76 濟州牧 三郡各浦魚基魚網稅及魚籠口文成冊  
/ 내장원 20674-奎 1901
- 77 濟州 三邑地圖 / [刊者未詳] 10482-奎 1872
- 78 耽羅地圖 / [刊者未詳] 4709-87-古 1709
- 
- \* 이외 국사편찬회, 정신문화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제주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차후 목록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록 2>

濟州鄉校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sup>90)</sup>

1. 靑衿錄 / 己未 九月 壬戌 二月, / 踏印
2. 靑衿錄 / 崇禎後 / 乙丑 / 給神案 儒生案
3. 靑衿錄 / 辛巳 正月 / 給神錄 靑衿錄
4. 靑衿錄 / 辛卯 正月 辛卯十二月 / 靑衿生追付件記
5. 靑衿錄 / 壬寅 正月 壬午 / 五月件記
6. 靑衿錄 / 丙戌 七月 / 給神錄 靑衿錄
7. 靑衿錄 / 庚午 四月 / 新付靑衿錄
8. 靑衿錄 / 庚辰 正月 / 新付靑衿錄
9. 靑衿錄 / 丙戌 七月 / 新付件記
10. 靑衿錄 / 庚午 二月 / 橘林書院錄 丁未春三月 跋
11. 蓮榜錄 / 光緒 十八年 壬辰(?) / 司馬先生案
12. 龍榜錄 / 未詳 / 給神先生案
13. 耽羅鄉籍 / 己卯 正月 / 嘉慶十六年附錄並修記跋
14. 儒案 / 庚戌 五月 / 鄉校兵案
15. 儒生錄 / 己未 十一月 / 別防面, 坪岱面,  
東中面, 西中面, 貴日面, 涯月面, 明月面
16. 耽羅鄉案 / 嘉慶十六年 / 修錄跋
17. 鄉案 / 天啓 參年 七月
18. 鄉案 / 光武 六年
19. 鄉案 / 光緒 十八年

---

90) 본 자료는 제주 향교에 소장된 제주관련 필사본이다. 1987년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 복사 제작 하였다. 상기 자료 중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자료가 일부 있기도 하다.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자료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그 외 자료들도 비과학적인 관리로 훼손되거나 산실 위기에 있다.

## 濟州鄉校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20. 鄉案 / 光武 三年 七月
21. 濟州鄉案 崇禎後 / 四年 二月 / 修正跋
22. 鄉案 / 光緒 元年 十二月
23. 免講案 / 兵午 三月 / 牧使手決 落款記
24. 免番查正都案 / 乙酉 五月 / 後跋
25. 院錄統案 / 壬辰 四月 / 崇禎五甲寅秋季跋
26. 院錄(?) / 後六十六年乙丑孟夏
27. 鄉校待闕案 / 乙卯 九月
28. 鄉校待闕案 / 庚申 十二月
29. 鄉校待闕案 / 辛巳 四月 / 己卯待闕失代改定案
30. 鄉校待闕案 / 乙酉 五月 / 兼提督手決
31. 鄉校待闕生案 / 兵子 閏五月 / 無案待闕查實修正案
32. 鄉校待闕生案 / 辛未 七月 / 兼提督手決
33. 鄉校品官案 / 壬寅 十一月 / 品官釐正節日 乙巳二月 品官案
34. 鄉品子枝案 / 乙丑 八月 / 兼提督金手決
35. 掌議案 / 庚子 八月 / 行使手決 序跋 濟州牧印落款
36. 三學改定節日 / 辛未 七月
37. 各面訓長設置節日 / 庚寅 十月 / 兼防禦使手決
38. 兩齋改定節日 / 壬申 正月 / 使手決
39. 鄉校贍學錢節日 / 癸未 五月
40. 春秋釋采時條器節日 / 辛丑 八月 / 使手決
41. 三所廢場劃給節日 / 兵子 十一月 / 兼使手決印
42. 校位田收稅定式節日 / 嘉慶 九年 九月 / 使手決印
43. 校田劃給節日 / 壬辰 十二月 /  
校田劃給校奴等節日兼整理使手決印
44. 應記 乾隆 / 己丑 八月

## 濟州鄉校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45. 鄉校及各壇留直生案 / 光緒二十年 四月 /  
    鄉校及各壇留直生成冊印
46. 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 / 癸巳春 / 權震應書 追跋
47. 濟州鄉校儒林會會議錄 / 1937年
48. 校中日誌 / 丁酉 正月以降
49. 辭免書綴 / 1937년
50. 儒道會原名簿 / 孔誕 二五一六 乙巳年 / 濟州市中部分會
51. 儒道會原名簿 / 翰林邑儒道會
52. 訓長帖發給台帳 / 孔誕 二五三八年 以降 / 濟州鄉校
53. 掌議帖發給台帳 /  
    孔誕 二五三八年 以降 / > 盾掌議推薦書包含
54. 訓長推薦書綴 / 孔誕 二五三八年 以降 / 濟州鄉校
55. 訓長案 孔誕 / 二五三八年 以降 / 濟州鄉校
56. 還校件記 / 癸卯 十一月 / 手書文書 使手決 落款
57. 稟日 / 戊午 十一月 十八日 / 手書文書 使手決 落款
58. 鄉校齋任書日 / 乾隆 十八年 八月 初六日 / 手書文書 使手決 落款
59. 上書文 / 戊辰 五月 / 使手決
60. 上書文 / 乾隆 四十三年 丁酉 / 使手決
61. 書日 / 乾隆 四十三年 丁酉
62. 聖廟移建上書文 / 辛丑 十月
63. 聖廟移建上書文 / 甲午 十月
64. 上書文 / 己卯 三月
65. 掌議薦 / 孔誕 二五一五年 二月一日
66. 訓長薦報 / 庚子 十二月 十三日
67. 掌議帖發給台帳 / 孔誕 2538年 以降
68. 訓長案 / 1987

## 濟州鄉校 所藏 濟州道關聯 資料 目錄

69. 掌議帖發給台帳
70. 訓長推薦書綴
71. 坪岱儒生高成燐上奏答文
72. 癸丑六月上奏文牧使答文
73. 濟州山勢論
74. 槁達里 / 戶籍中草 / 同治 六年
75. 槁達里 / 戶籍中草 / 同治 六年
76. 槁達里 / 戶籍中草 / 光緒 三年
77. 槁達里 / 戶籍中草 / 光緒 三年
78. 律典精選
79. 槁達里 / 元田太及家幕稅革罷節日 / 道光 二十六
80. 槁達里 / 元田太及家幕稅革罷節日 / 道光 二十六
81. 濟州高山龍水 / 節婦高氏設置香火勸善錄
82. 濟州高山龍水 / 節婦高氏設置香火勸善錄
83. 山圖
84. 康節邵先生手著梅花易數
85. 史文
86. 金佑鄉蒲葵詩
87. 金佑鄉蒲葵詩
88. 張漢峰遺稿集 / 甲申冬(1764?)
89. 醮祭官選定記 / 1923 以降
90. 金斗元 / 濟州巫歌集
91. 文貞奉 / 風俗巫音 / 1945. 2
92. 文貞奉 / 風俗巫音
93. 光武八年一月日 三郡戶口家間摠冊(濟州牧)
94. 慶州金氏 戶口單子, 準戶口(160매) / 제주도 남원읍 태흥리  
김씨가에 소장된 18-19세 작성된 것임.
96. 濟州府令辭要覽/저자 미상, 복사본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됨

### 〈부록3〉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日録 91)

1. 国立国会図書館 所蔵 資料 日録
2. 福岡市立総合図書館 所蔵 資料 日録
3. 日本 全国 大学図書館 所蔵 資料 日録

### 1. 国立国会図書館 所蔵 資料 日録

#### ♣ JAPAN MARC 〈一覽リスト〉

昭和 I, II 期

1. 濟州道: 泉靖一著, 東京大学出版会(311, 49p), 1996.
2. 濟州道民謡研究(上): 金榮敦著, 一潮閣(423, 38p), 1965.
3. アジアの民話(2): 大日本絵画巧芸美術(359p), 1978. 9
4. 泉靖一著作集(1): 読売新聞社(426p), 1972
5. 濟州道, 三多の働哭史: 韓東龜著, 国書刊行会(398p), 1975
6. 濟州道観光開発計画調査報告書: 海外技術協力事業団(78p), 1972
7. 濟州道血の歴史, 4・3武装闘争の記録: 金奉鉉著, 国書刊行会(330p), 1978. 4
8. 濟州道民謡紀行: 服部竜太郎著, 未来社(221p), 1972
9. 朝鮮幽囚記, 東洋文庫: ヘンドリック・ハメル著, 平凡社(252p), 1969
10. 韓国濟州道の地域研究, 學術調査報告書: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155p)1988. 3
11. 濟州道古代文化の謎: 宋錫範著, 成甲書房(206p), 1984. 10
12. 濟州道の地名考: 金奉鉉著, 国書刊行会(404p), 1988. 2

---

91) 〈濟州道 關聯 資料日録〉은 日本 國會圖書館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제주도 관련 자료 목록을 검색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JAPAN MARC로 구축되어 있다.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13. 濟州道巫俗の研究: 玄容駿著, 第一書房(499,30p) 1985. 7
14. 濟州道「四・三事件」とは何か, 濟州道四・三事件40周年追悼記念講演集  
: 濟州道四・三事件40周年, 新幹社(191p), 1988. 11
15. 濟州道四・三蜂起: ジョン・メルル著, 文京洙, 新幹社(164p), 1988. 3
16. 濟州道略史, 耽羅叢書: 金泰能著 梁聖宗訳, 新幹社(139p), 1988. 2
17. ソリ」の研究, 韓国農村における音と音楽の民族誌:  
桜井哲男著, 弘文堂(299, 6p), 1989, 2
18. チャチュンビ伝説, 濟州道のシャーマン神話  
金仁覧訳, 工作舎, 1988. 12
19. 濟州道四・三抗争論の現段階, 濟州道「四・三事件」を考える  
濟州道「四・三事件」を考え(64p), 1993. 4
20. 濟州道, 四季彩: 徳山謙二郎著, 海風社(63p), 1991. 12
21. 濟州道, 写真集(1): 金秀男写真 韓林花文 神, 国書刊行会(96p), 1993. 7
22. 濟州道, 写真集(2): 金秀男写真 韓林花文 神, 国書刊行会(96p), 1993. 7
23. 濟州道, 写真集(3): 金秀男写真 文武秉文 神, 国書刊行会(96p), 1993. 7
24. 濟州道四・三事件(第一巻): 「濟民日報」四・三取材班著, 新幹社(551p), 1994.
25. 濟州道四・三事件(第二巻): 「濟民日報」四・三取材班著, 新幹社(328p), 1995.  
4
26. 韓国濟州道の別棟型民家の成立に関する予察的研究  
佐々木史郎, 歴史地理学, 1994. 12
27. 90年代的韓国, 90年代的文芸家(濟州道から文学を眺)  
関川夏央, すばる, 1994. 3
28. 韓日作家会議のこと(濟州道から文学を眺めて--日・)  
林哲佑[著]; ・, すばる, 1994. 3
29. 濟州道から文学を眺めて--日韓文学シンポジウム〈特集〉 すばる, 1994. 3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30. 島々の記憶をめぐる(濟州道から文学を眺めて--・)  
[座談会]文忠, すばる, 1994. 3
31. 第2回韓日作家会議参観記(濟州道から文学を眺めて)  
金恵順[著];・, すばる, 1994. 3
32. 第3種の遭遇(濟州道から文学を眺めて-日韓文学シン)  
柄谷行人, すばる, 1994. 3
33. 濟州道漢拏山と対馬山地のチョウセンヤマツツジ群落  
金文洪; 伊藤・, 長崎大学教養部紀, 1994. 1
34. 韓国濟州道のチョウセンサンショウウオの核型[英文]  
瀬戸武司; 飯・, 爬虫両棲類学雑誌, 1993. 12
35. 韓国濟州道におけるフグ類とその漁業: 多部田修[他], 日本水産学会誌, 1993. 10
36. 濟州道と対馬の溪谷川岸におけるチョウセンヤマツツジ群落  
伊藤秀三[他], 長崎大学教養部紀, 1993. 7
37. 濟州道の住民活動とその意味--濟州道開発特別法の  
趙文富, 環境と公害, 1993. 2
38. 観光地開発に於ける観光宿泊産業の發展方向に關す  
金昌植, 阪南論集 人文・白, 1993. 1
39. 韓国濟州道の商業中心地システム: 鈴木厚志, 立正大学文学部論, 1992. 9
40. 韓国濟州道における工業の分布と業種特性: 大塚昌利,  
地域研究(立正地・), 1991. 6
41. 韓国濟州道の火山岩のK-Ar年代とその層序学的解析  
長生志郎, 地質調査所月報, 1990. 10
42. 川崎ジェットフォイル“ながさき”の概要--初の国際航路(長)  
川崎重工業K, 船の科学, 1990. 4
43. 衛星からみた濟州道のカルマン過列: 海野豊; 石田・, 関西朝鮮協力誌, 1990. 3
44. 韓国濟州道のカンキツ: 岩垣功, 農業および園芸, 1990. 3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45. 韓国濟州道における観光宿泊施設の立地形態  
大塚昌利; 萩・, 地域研究(立正地・), 1990. 2
46. 濟州道出身の官僚高得宗について: 高橋公明, 名高屋大学文学部, 1990
47. 濟州道に残存するAltai語彙要素考--特に濟州市内・  
朴相圭[著];・, 大阪経済法科大学, 1989. 11
48. 海外悠遊山歩き(6濟州道に聳える韓国の最高峰・漢  
小松達彦, 岳人(東京中日新・), 1997. 10
49. 海外赴任事情--韓国濟州道をふりかえって: 漆沢保, 外国人登録(外国・),  
1997. 9
50. 火山島によせて--濟州道への旅(特集 在日朝鮮人文)  
小野梯次郎, 新日本文学(新日・), 1997. 9
51. 韓国濟州道にお222ける城邑集落の構成について--風水  
朴賛弼; 山田・, 日本建築学会計画, 1997. 7
52. 生活共同原理の可能性--韓国・濟州道・杏源里社会の  
伊地知紀子, ソシオロジ(社会学研・), 1997. 5
53. 再びの韓国, 再びの濟州道 (二完)「火山島」への道  
金石範, 世界(岩波書店Ⅱ), 1997. 4
54. Some Ecological Features and Traditional Way  
任良宰, Tropics(日本熱帯), 1997. 3
55. 高野史男著『韓国濟州道--日本をむすぶ東シナ海の要』  
正井泰夫, 立正大学文学部論, 1997. 3
56. スクープ逮捕! 服部前関空社長 濟州道「賭博・女・酒」の・  
週刊読売(読売新・), 1997. 2
57. 再びの韓国, 再びの濟州道(一): 金石範, 世界(岩波書店Ⅱ), 1997. 2
58. 新しい国際観光地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韓国・濟・  
自治体国際化, 地域政策(地域政・), 1997. 1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59. 風水思想からみた濟州道城邑集落の空間構成の考察  
朴贊弼; 山田・, 民俗建築(日本民・), 1996. 11
60. 桝田一二の濟州道研究--地誌学の-典型  
高野史男, 地域研究(立正地・), 1996. 10
61. 名水を訪ねて(34)韓国・濟州道の名水  
島野安雄; 河・, 地下水学会誌(日・), 1996. 8
62. 「四名協議」実現に緊密な連携で一致--日韓両首相が  
世界週報(時事通・), 1996. 7
63. 横浜市寿町へ出稼ぎ労働者を送る村--濟州道K邑B村  
高鮮徽, 寄せ場(日本寄せ・), 1996. 5
64. 韓国濟州道, 下部更新統西帰浦層の堆積相と古環境  
姜淳錫, 第四紀研究, 1995. 3
65. 韓国・濟州道の言語・民俗調査: 春日正三, 立正大学文学部論, 1995. 3
66. 韓国・濟州道で採取したボーリング試料の地質年代と層  
松岡数充[他], 長崎学教養部紀, 1995. 1
67. 濟州道世界の今と昔(特集 濟州道世界): 原尻英樹, 地理(古今書院), 1998. 5
68. 濟州道の漁法あれこれ(特集 濟州道世界): 高光敏, 地理(古今書院), 1998. 5
69. 濟州道人から「定住コリアン」へ--「コリアタウン」とともに創造  
上田智也, 地理(古今書院), 1998. 5
70. 濟州道人のネットワークコミュニティ(特集 濟州道世界)  
原尻英樹, 地理(古今書院), 1998.5
71. 濟州道民の海上活動--19世紀の事例から(特集 濟州道世界)  
六反田豊, 地理(古今書院), 1998. 5
72. 第二の故郷「荒川区 三河島」--高内里からの人びとの  
大野祐二, 地理(古今書院), 1998. 5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日録

73. 朝鮮王朝時代の濟州道での土地売買(特集 濟州道世界)  
高昌錫, 地理(古今書院), 1998. 5
74. 特集 濟州道世界: 地理(古今書院), 1998. 5
75. 日本における濟州道研究文献の流れ(特集 濟州道世界)  
梁聖宗, 地理(古今書院), 1998. 5
76. 「濟州道4・3事件」50周年を迎えて: 金重明, Sai(在日コリアン・マイノ), 1998. 3
77. 「染織の伝統技法」に学ぶ--伝統的染めの技法を訪ね・  
李善愛, 纖維製品消費科学, 1998. 1
78. 韓国濟州道の海女の潜水作業実能について: 飯島秀郎; 矢・, 民族衛生, 1992. 3
79. 濟州道と九州住民の生体計測--その形態の特徴と性  
安部国雄; 田・, 順天堂大学文理学, 1990. 12

## 2. 福岡市立総合図書館 所蔵 資料 日録<sup>92)</sup>

### ♣ 単語検索(書誌一覧)

80. 韓国濟州道: 高野史男/著, 中央公論社, 1996. (中公新書), 292. 19
81. 濟州道の民話: 玄容駿/原著, 大日本絵画巧芸美術, 1978. (アジアの民話), 388.
82. 濟州道古代文化の謎: 宋錫範/著, 成甲書房, 1984. 221. 02
83. 濟州道略社: 金泰能/著, 新幹社, 1988. (耽羅叢書), 221. 9
84. 濟州道の地名考: 金奉鉉/著, 国書刊行会, 1988. 292. 19
85. 濟州道四・三蜂起: ジョン・メルル/著, 新幹社, 1988. 221. 07

---

92) 日本 福岡市立総合図書館 소장 목록중에 제주도 관련 자료 목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목록과 일부 중복된 자료도 있다. 본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한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도를 연구한 자료들이 어디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를 제주지역 도서관에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86. 濟州道「四・三事件」とは何か, 濟州道四・三事件40周年  
追悼記念講演集刊行委員会/編,新幹社,1988,
87. 濟州道: 泉靖一/著, 東京大学出版会, 1991. 382. 219
88. 濟州道・四季彩: 徳山謙二郎/著, 海風社, 1991.748
89. 濟州道(1): 金秀男/写真, 国書刊行会, 1993. 382. 219
90. 濟州道(2): 金秀男/写真, 国書刊行会, 1993. 382. 219
91. 濟州道(3): 金秀男/写真, 国書刊行会, 1993. 382. 219
92. 濟州道民謡紀行: 服部竜太郎/著, 未来社, 1972. 388
93. 濟州道四・三事件 第3巻: 『濟民日報』四・三取材班, 新幹社, 1996. 221. 07
94. 濟州道四・三事件 第4巻: 『濟民日報』四・三取材班, 新幹社, 1998. 221. 07
95. 在日濟州道出身者の生活過程: 高鮮徽/著, 新幹社, 1996. 334. 41
96. ソウル釜山濟州道慶州扶余: 角州書店, 1988.  
(カドカワトラベルハンドブック)、292. 1
97. 釜山・慶州・濟州道: 日地出版, 1998. ( ニューツアーガイド世界の本), 292. 1

### 3. 日本 全国 大学図書館 所蔵 資料 目録<sup>93)</sup>

NACISIS webcat: 簡略表示

〔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されている〕

98. 「ソリ」の研究: 韓国農村における音と音楽の民族誌/  
桜井哲男著-- 弘文堂, 1989.
99. 海女と漁師の四季/ 金秀男写真; 韓林花文  
; 神谷丹路訳-- 国書刊行会, 1993.-- (濟州道: 写真集; 2)

---

93) 일본 전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제주관련 자료 목록이다.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 중 일부는 제주도 학자에 의해 제주지역에서 발간한 자료들이다. 이들 원문 자료는 제주대학교 도서관에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으나 제주도 관련 연구물을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자료들은 제주지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100. 猪飼野物語: 濟州道からきた女たち/ 元秀一著-- 草風館, 1987
101. 泉靖一伝; アンデスから濟州道へ/ 藤本英夫著-- 平凡社, 1994
102. 韓国: 濟州道からソウルへ.-- 集英社, 1982--  
(篠山紀信シルクロード/篠山紀信写真・文; 第2巻)
103. 韓国濟州道: 日韓をむすぶ東シナ海の要石/  
高野史男著, 中央公論社, 1996-- (中公新書; 1326)
104. 韓国濟州道の地域研究: 學術調査報告書/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道學術調査団編著--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道學術調査団, 1988
105. 韓国ソウルの本: 慶州・釜山・濟州道--改訂版--  
近畿日本ツーリスト, 1988-- (旅のガイドムック; 16)
106. 韓国の民間信仰: 濟州道の巫俗と巫歌/  
張?根著; 論考篇, 資料篇, 金花舎, 1974- (叢書/仏教文化の世界)
107. 濟州道・漢拏山・濟州道の自然と風物・  
濟州道々勢一斑- 景仁文化社, 1989- (韓国地理風俗誌叢; 100)
108. 濟州道: 三多の働哭史/ 韓東龜著-- 国書刊行会, 1975
109. 濟州道: 写真集-- 国書刊行会, 1993
110. 濟州道/ 耽羅研究会[編集]--1号, (1989. 4)
111. 濟州道/ 泉靖一著-- 東京大学出版会, 1966
112. 濟州道/ 泉靖一著--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1966--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報告)
113. 濟州道/ 星野貞治作-- 檸檬社, 1980
114. 濟州道考古学研究/ 李清圭著-- 学研文化社, 1995--  
(学研文化社考古学叢書; 10)
115. 濟州道古代文化の謎/ 宋錫範著-- 成甲書房, 1984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116. 濟州道四・三蜂起/ ジョン・メルル著; 文京洙訳-- 新幹社, 1988
117. 濟州道勢要覽, 濟州道(生活状態調査) -- 景仁文化社, 1994--  
(韓国地理風俗誌叢書; 184)
118. 濟州道血の歴史: 4・3武装闘争の記録/ 金奉鉉著-- 国書刊行会, 1978
119. 濟州道の地名考/ 金奉鉉著-- 国書刊行会, 1988
120. 濟州道の民話/ 玄容駿原著;  
朴健市訳-- 大日本絵画巧芸美術, 1978-- (アジアの民話/ 関敬吾[ほか])
121. 濟州道巫俗の研究/ 玄容駿著-- 第一書房, 1985
122. 濟州道方言の形態論的研究/ 李崇寧著--再版-- 塔出版社, 1985--  
(国語学研究選書/ 金完鎮, 李秉根 編修 ; 5)
123. 濟州道民謡1972 [録音資料]/ 桜井哲男録音・解説・写真:  
1 北部編-3南部編--日本ビクター: ビクター音 楽産業(発売), 1992.--  
(地球の音楽[録音資料]: フィールドワーカーによる音の民族誌; 63-65)
124. 濟州道民謡紀行/ 服部竜太郎著, 未来社, 1972
125. 濟州道「四・三事件」とは何か:  
濟州道四・三事件40周年追悼記念講演集/ 濟州道四・三事件40周年 追悼  
記念講演集刊行委員会編--新幹社, 1988
126. 濟州道四・三事件/ 「濟民日報」四・三取材班; 文京洙, 金重明訳-- 新幹社
127. 濟州道略史/ 金泰能著, ;梁聖宗訳-- 新幹社, 1988--(耽羅叢書 ; 1)
128. 濟州道流人伝/ 金奉鉉著-- 国書刊行会, 1981
129. 濟州道歴史誌/ 金奉鉉編著-- 金中林, 1960
130. 在日韓国・朝鮮人の生活・文化と適応に関する保健社会学的研究/  
研究代表者園田恭-- 園田恭, 1988
131. 在日濟州道出身者の生活過程: 関東地方を中心に/ 高鮮徽著-- 新幹社, 1996
132. 信仰と祭りの世界/ 金秀男写真; 文武秉文; 神谷丹路訳-- 国書刊行会, 1993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関聯 資料 目録

133. ソウル・韓国: 釜山・慶州・濟州道/ ブルーガイド・パシフィカ編集部編--実業之  
日本社, 1987(ブルーガイド パシフィカ ; 6)
134. ソウル・釜山・濟州道・慶州・扶余-- 角川書店, 1988--  
(カドカワトラベルハンドブック ; 18)
135. 耽羅(たむな)のくにの物語:濟州道文学選 / 大村益夫編訳-- 高麗書林, 1996
136. 濟州道(チェジュド)の女: 詩集/ 金水善著.--  
土曜美術社出版販売, 1995 --(現代詩の前線 ; 9)
137. チャチュンビ伝説: 濟州道のシャーマン神話/  
金仁◆D43682◆覧訳-- 工作舎, 1988
138.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済民日報」四・三取材班著;  
文京洙, 金重明訳-- 新幹社, 1994--(濟州道四・三事件/「済民日報」  
四・三取材班著 ; 文京洙, 金重明訳 ; 第1巻)
139. 朝鮮幽囚記/ ヘンドリック・ハメル著;生田滋訳-- 平凡社, 1969  
(東洋文庫 ; 132)
140. 漢拏山と人々の暮らし/ 金秀男写真: 韓林花文:  
神谷丹路訳--国書刊行会, 1993--(濟州道 : 写真集 : 1)
- 141.ひとり歩きのソウル・釜山・慶州・濟州道.--  
JTB日本交通交社出版社業局, 1994.-- (JTBのマップガイド; 7)
142. 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 泉靖一著;  
1, 2 --読売新聞社, 1972. -- (泉靖一著作集 : 1-2)
143. 四・三蜂起から単独選挙まで/ 「済民日報」  
四・三取材班著; 金重明, 朴郷丘共訳-- 新幹社, 1995, --  
(濟州道四・三事件/ 「済民日報」四・三取材班著 ;  
文京洙, 金重明訳 ; 第2巻)



## 日本 図書館 所蔵 濟州關聯 資料 目録

144. 流血惨事への前哨戦/『濟民日報』 四・三取材班著  
；金重明訳-- 新幹社, 1996. -- (濟州道四・三事件/  
「濟民日報」 四・三取材班著；文京洙, 金重明訳；第3卷)
145. われ=われの旅: NY・ベルリン・神戸・濟州道/ 小田実・玄順恵著, 岩波書店, )
146. 韓国を食べ歩く: ソウルから濟州道まで,  
「料理」と「食堂」のすべて/ 筒井功著, 西田書店, 1989
147. 濟州道案内: 朝鮮之宝库/ 青柳鋼太郎著, 降文館, 1905
148. 濟州道學術調査報告/ 九州大学海外學術調査委員会編 第1集- 九州大学,  
1970- (九州大学海外學術調査委員会學術報告: 第3号)
149. 濟州道における総合開発界面/  
自治体国際化協議ソウル事務所[著].  
自治体国際化協会, 1995-- (CLAIR report : 108)
150. 徐福集團の濟州道渡來說/ 洪淳晩著; 渡昌弘訳.  
岡崎地方史研究会, 1996
151. 焦土化作戦/ 金重明, 文純実共訳; 上. -- 新幹社, 1988  
(濟州道 四・三事件/「濟民日報」 四・三事件取材班著  
；文京洙, 金重明訳；第4卷)
152. 力持ちのマクサニ:濟州道の民話/ ヒョン・キルオン著;  
ヤン・ミンギ, チェ・ソギ訳.-素人社,1997.-リ ア児童文学選)
- 〈全国の大学図書館の蔵書データベースから[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されている]**

## 感謝의 글

이 한편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상한 지도로써, 학문에 길로 인도하여 주신 朴龍峒 教授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문에 길이忍苦의 길을 깨우쳐 주신 金恒元 教授님과 韓錫祉 教授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향토자료에 애착을 갖게 해준 韓昌榮 教授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 제공과 조언을 해주신 동료 金美伶 先生님에게도 심심한 謝意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신 姜漢根(요한) 형제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晩學의 길을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해준 아내 베로니카와 딸 데레사 두 아들( 리노와 미카엘)에게도 고마움을 보냅니다.

또한 博士課程 修學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야고버)을 두고 하느님 품에 안긴 나의 동생 요셉이가 이루지 못한 학문의 뜻을 조금이나마 채워 보냅니다.

1999년 초 여름에

梁 相 淑